

제 4 차

한국문학탐방 I 자료집

2009

충남북 전남북지역 (4월 1일 - 4월 4일)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목 차>

봄의 향기 · 바다냄새 · 하늘빛깔

1. 탐방단 구성	3
2. 일 정 표	4
3. 발표장소/배정표	5
4. 답사 지도	7
5. <1조> 홍명희/홍기문	8
6. <2조> 송시열	14
7. <3조> 정지용	18
8. <4조> 한용운	23
9. <5조> 정극인	28
정읍사	32
10. <6조> 최명희	35
11. <7조> 김시습	40
12. <8조> 춘향전	44
13. <9조> 심청전	50
백광홍	54
14. <10조> 송기숙	58
15. <11조> 한승원	63
16. <12조> 이청준	67
<수업 일정 및 과제 안내	71>

한국문학탐방단 구성

단장 : 학과장

조별 지도교수

A반(1-6조) : 오춘택 교수 B반(7-12조) : 이병기 교수

* 재정 및 진행 기록 담당 : 민선희 조교 보조 : 한혜림

전체 진행 : 학생회장(권혁기), 발표 사회 : 답사부장(주현태), 숙식 관리 : 부학생회장(한소영)

<인솔 관리 : 김응기, 채진두, 박은서, 석민수 숙식관리 협조: 전석민> * () : 단순 참가
<고속도로 관리 : 고강기>

<배차> 총 75명

1호차: 1-6조(A) 오춘택교수, 유명희교수, 민선희조교, 학생회장, 김혜경, 김홍월(대학원생) : 38명

2호차: 7-12조(B) 이병기교수, 부학생회장, 답사부장 : 37명

<준비물>

공동 준비물 : 지도, 비상약 등

개인 준비물 : 의복, 필기도구, 자료집, 학생증, 카메라, 우산, 세면도구 등

<주의 사항>

유적 관람 시간 : 발표와 자유 관람을 반씩

자유 관람할 때 개인행동도 조별로 실시할 것

2009학년도 <한국문학탐방1> 일정표

	4월 1일(수)	4월 2일(목)	4월 3일(금)	4월 4일(토)
08	07:10 연암관 1층 집합 07:30 학교 출발	06:20 일출 07:30 조식 주꾸미축제행사장 00 동백산장 출발	07:30 조식 00 남원 출발	6:12 일출 (향일암) 7:30 조식 08:30 향일암 출발
09	40 괴산군 홍범식고택 홍명희 <임궐정> 홍기문 <국어학자>	30 태인 칠보 상춘곡가사비 정극인 <상춘곡>	00 곡성군 심청문화센터 <심청전> 20 심청공원 출발	30 오동도 관람 30 (영취산 진달래)
10	40 화양구곡(암서재) 송시열 <시조>	00 무성서원 출발 40 정읍 동학혁명기념관 관람	59 장흥 안양면 기산리 백광홍 가사비 <관서별곡>	
11	(「늬고병든몸이」 「님이 해 오시매」 「청산도 절노절노」 40 화양구곡 출발	10 기념관 출발 30 정읍사기념공원 고려숙요 <정읍사>	30 장흥 용산면 모산리 송기숙생가 <녹두장군, 암태도>	00 오동도 출발
12		00 내장산 입구 도착 중식 : 맷돌순두부 30 출발	20 회진항 중식 : 천년학횃집식당 50 한승원생가	00 중식 섬진강휴게소 30 휴게소 출발
13	00 옥천군 도착 중식 : 마당넓은집 (043-733-6350) 30 정지용 생가 <바다9, 유리창1, 향수>		발표 : 회진항여객선터미널 <포구, 물보라> 30 이청준생가 <서편제> 세트장: <선학동나그네>	
14	00 옥천군 출발	00 남원 혼불마을 최명희 <혼불>	10 회진항 출발	
15		00 남원 오리정 : 통과 관람 50 남원 만복사지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00 보성녹차밭 관람 20 보성녹차다향각 출발	
16	30 홍성 한용운생가 <님의 침묵, 나뭇배와 행인>	20 남원 광한루원 도착 <춘향전>		
17	50 마량 동백정 도착	40 석식 : 천년돌술밥	50 여수 향일암 도착	50 학교 도착
18	00 주꾸미축제 행사장 석식 숙소: 동백산장	30 숙소 : 쌍둥이파크	20 석식(만찬 평가회) 숙식: 종점모텔	

* 출발과 도착은 버스 시간을 뜻함(휴게소 정차 시간 : 10분)

*** 발표 장소 및 배정표 ***

* 과제의 제목을 참신하게 바꾸어도 됨.

<1조> 홍명희 생가

1. 홍범식의 생애 (김규형), 2. 홍명희의 생애 (김민우), 3. <임꺽정>에 대하여 (주현태), 4. 홍기문의 생애와 국어연구 (강주희) 5. 홍석중의 <황진이>에 대하여 (김혜수), 6. 관련 유적 : 홍범식 군수 선정비, 제월대, 홍범식 생가 (나동환)

<2조> 송시열의 화양구곡

1. 송시열의 생애 (노한나), 2. 송시열의 학문경향과 정치사상 (박은서)
3. 송시열의 시조에 대하여 (박경윤), 4. 송시열과 화양구곡 (김경례)

<3조> 정지용 생가

1. 정지용의 발자취 (류호성), 2. 감각, 그리고 또 감각 -정지용의 시세계- (석민수), 3. 그가 그린 바다의 마지막 이미지 -<바다9> 이해- (석민수), 4. <유리창1>의 이해 (박경하), 5. <향수> 이해하기 (김주경)

<4조> 한용운 생가

1. 만해 한용운의 생애 (박 빛), 2. 만해 한용운의 시세계 (박지훈), 3. <님의 침묵>의 이해 (문숙경), 4. <나룻배와 행인>의 이해 (고강기), 5. 만해 한용운의 발자취 : 홍성 생가, 백담사와 오세암, 서울 심우장 (배민지)

<5조> 태인 상춘곡 문학비

1. 정극인의 생애 (백민혜), 2. <상춘곡>의 문학사적 의의 (백소연), 3. 정극인 관련 유적 (송인정)

정읍 정읍사공원

4. <정읍사>의 소개 (홍현진), 5. <정읍사>의 문학사적 의의 (왕효진)

<6조> 혼불문학관

1. 최명희의 생애 (유미나), 2. 최명희의 소설세계 (윤다현), 3. <혼불>의 이해 (한소영, 홍에스더), 4. <혼불>의 배경 (김웅기)

<7조> 남원 만복사지

1. 김시습의 생애 (윤호진), 2. 김시습의 작품세계 (이근용), 3. <만복사저포기>의 이해 (채진두), 4. 관련 유적 (한혜림)

<8조> 남원 광한루원

1. <춘향가>와 <춘향전> (홍초록), 2. <춘향전>의 모델과 작가탐색 (김은경), 3. <춘향전>의 주제 - <춘향전의 주제를 둘러싼 논란> (송아름), 4. <춘향전>의 연구사 (이지선), 9-5 <춘향전>의 배경 (이진희)

<9조> 곡성 심청공원

1. <관음사 연기 설화>에 대하여 (박경남), 2. <관음사 연기 설화>와 <심청전>의 비교 (박경남), 3. <심청전>의 주제 (임승희), 4. 심청전 배경 : 관음사, 백령도, 중국 주산열도 (장원석)

장흥 기양사(백광홍 사당)

5. 백광홍의 생애 (김유리), 6. <관서별곡>의 내용 (김유리), 7. <관서별곡>의 문학사적 의의 (정용호), 8. 관련 유적 : 기양사 (정우리)

<10조> 장흥 송기숙 생가

1. 송기숙의 삶 (조기현), 2. 송기숙의 소설세계 (조연수), 3. <녹두장군>의 이해 (신하늬), 4. <암태도의>의 이해 (시민경), 5. 관련 유적 : 정읍동학농민혁명기념관,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비, 암태도 (주소현)

<11조> 장흥 회진포구

1. 한승원의 삶 (최새봄), 2. 한승원의 소설세계 (최순택), 3. 한과 풍요의 이질적 만남 -<포구>의 이해- (박정성), 4. <물보라>의 이해 (우혜민)

<12조> 장흥 이청준 생가

1. 이청준의 생애 (최유경), 2. 이청준의 소설세계 (한유진), 3. <서편제>의 이해 (한태성), 4. <선학동나그네> - 남도 사람, 그 세 번 째 - (권혁기)



1. 홍범식의 생애

20091101 김규형

홍범식은 1910년 금산군수로서 경술국치를 당해 비분 끝에 자결한 인물로 유명하다.

1871년 괴산 인산리에서 홍승목의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18세 때인 1888년 성균시에 급제하였다. 그 후 갑오개혁으로 과거제가 폐지되자, 문과를 거치지 않은 채 내부주사, 혜민원, 참서관을 거쳐 태인군수에 임명되었다가, 1909년 금산군수가 되었다.

홍범식은 부모를 효성스럽게 섬기고 형제들을 우애로써 대하며, 학문을 좋아하고 글재주가 뛰어났다. 또한 그는 천성이 인애로워 부인과 같이 부드러웠으나, 불의를 보면 용납할 줄 모르고 의를 사모하는 지절을 갖추었다.

1902년 내부주사를 시작으로 벼슬길에 오른 홍범식은 을사조약 이후로 항상 비분해하며 "민충정공은 좋은 일을 이루었다"고 말하곤 하였다. 홍범식은 1907년 태인군수로 부임한 뒤에는 백성들을 의병으로 몰아 함부로 죽이는 일이 없도록 수비대장들을 설득했으며, 황무지 개척과 관개사업에 힘쓰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1909년 금산군수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곳에서도 몰수되어 국유로 될 뻔했던 백성들의 개간지를 돌려주도록 주선하는 등 선정을 펴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

금산군수로 재직 중이던 홍범식은 고종의 생신을 기하여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아, 내가 이미 사방 백 리의 땅을 지키는 몸이면서도 힘이 없어 나라가 망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니 속히 죽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고 탄식하고, 죽음을 결심한 뒤 남몰래 유서를 미리 장만해 두었다.

마침내 경술국치를 당한 1910년 8월 29일 저녁 그는 사또가 망궐례를 행하는 곳인 객사 뒤뜰 소나무 가지에 목을 맨 채로 자결하였다. 객사 안의 벽에는 "나라가 파멸하고 임금이 없어지니 죽지 않고 무엇하리" 라는 여덟 자의 유언이 적혀 있었다. 자결 당시 홍범식은 향년 40세였으며, 유고로 '일완사고' 라는 문집을 남겼다.

홍범식의 장례는 전 군민들의 애도 속에 성대하게 치러졌다. 발인 날에는 온 고을 사람들이 나와 분향하고 통곡했으며, 장례 일행이 괴산 선영을 향할 때 100여 명의 백성들이 300리나 되는 길을 따라 걸었다. 괴산군 제월리 산수골의 선영에 묘를 썼다가, 3년 뒤인 1912년 8월 같은 선영 내에서 이장하여 홍명희의 생모 은진 송씨와 합장하였다.

홍범식은 자결하면서 아들 홍명희에게 유언을 남기고 생을 마감하였다. "기울어진 국운을 바로잡기엔 내 힘이 무력하기 그지없고 망국노의 수치와 설움을 감추려니 비분을 금할 수 없어 스스로 순국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피치 못해 가는 길이니 내 아들이, 너희 들은 어떻게 하나 조선사람으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여 잃어진 나라를 기어이 찾아야 한다. 죽을지언정 친일을 하지 말고 먼 훗날에라도 나를 욕되게 하지 말아라."

2. 홍명희의 생애

20091102 김민우



1888년 7월 충북 괴산군 괴산면 인산리에서 명문 풍산 홍씨가 장손으로 태어났다.

홍명희는, 열세 살 되던 1900년, 3살 위인 여흥 민씨 삼방파에 속하는 참판 민영만의 딸과 혼인하였다. 또한 16세 때 장남 기문이 태어났다. 1905년 졸업 후 귀향 생활 중 일본인 부부를 만나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동경상업학교 예과 2학년에 편입한 뒤 이듬해 대성중학교 3학년에 편입하여 1909년까지 생활한다.

그러나 그는 졸업을 눈앞에 두고 중도 포기하고 1910년 1월 초 귀국하게 되는데 귀국 후 육당의 「소년」지에 몇 편의 번역문을 게재하였다. 그는 3년 상이 끝날 때까지는 문학도 포기하고 특별히 하는 일 없다가 돌연 1912년 중국으로 떠나게 된다. 1912년부터 1918년 귀국하기까지의 중국과 남양에서 홍명희의 행적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해외에서 귀국한 홍명희는 32세 되던 해인 1919년 3월 향리 괴산에서 장날에 충북 지방에서는 최초로 만세 시위를 펼쳤다. 홍명희는 검거되어 재심 끝에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1920년 초에 일시 휘문고보와 경신고보 교사를 지냈으며, 중앙 불교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에 출강하기도 했다. 1924년 친일 단체인 조선일보에 민족주의자로서 명망이 있던 남강 이승훈이 사장에, 주필 겸 편집국장에 홍명희가 초빙되었다.

홍명희는 1925년 1월에는 한국 신문사상 최초로 '신춘문예'를 공모하기로 했다. 그러나 5개월 만에 이승훈을 사장에서 몰아내고 사주 김성수가 직접 들어앉아 홍명희는 점차 영향력을 잃고 소극적으로 변했다. 그러자 1925년 4월 동아일보에서 시대일보 편집국장,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시대일보는 경영난으로 1926년 폐간하게 된다. 폐간 후 홍명희는 오산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였다.

그러나 부임하던 그 해 말부터 신간회 창립에 관한 논의가 급진전되어 다음해 2월의 신간회 창립, 지회 설립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전임 교장 조만식과는 뚜렷한 대조가 되어 이사장 이승훈의 불만을 쌓아가게 되어 1927년 교장직을 사임하고 만다. 상경하여 신간회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한편 1928년 10월 조선일보에 「임격정」을 연재하게 된다.

그리고 1929년 광주학생운동을 반일시위로 확대하기 위해 민중대회를 추진하다 검거되었다. 2년을 넘는 옥중 생활 가운데 신간회는 해소되고 말았다.

1932년 4월 만 2년 이상의 형기를 마치고 출옥한다. 출옥 후 객관적인 정세가 일변할 때까지 국내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체념하고, 광범위한 독서와 「임격정」의 집필에 몰두하는 길을 걷게 된다.

다음 부분은 사료가 없어 정리하기 어렵다. 단지 해방 정국에서 민주독립당의 대표로서 민족통일국가의 건설을 위한 통일전선운동에 진력하다가 남북연석회의를 계기로 북에 남은 뒤 그곳에서 부수상, 과학원장 등을 역임했다는 정도로 알려져 있다.

3. <임꺽정>에 대하여

20081140 주현태

1) 소설 <임꺽정> 줄거리



임꺽정은 백정의 자식이었다. 조선시대에 백정은 노비와 비슷할 정도로 천대 받는 직업이었다. 1545년 명종의 즉위와 함께 외척정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권력이 소수에 집중되어 일부 권세가들만 부유해지고, 국가의 세금 수탈 구조가 정도를 잃고 일반 백성들은 농토를 잃음으로써 더 이상 살길이 없었다.

부당한 신분차별을 당하면서 썩은 세상에 분노하고, 양반들에게 수탈당해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살길을 찾기 위해 황해도에서 임꺽정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다. 그들은 양반들이나 돈꾼개나 있는 상인들한테 통행세를 받으면서 먹고 살았고, 탐관오리나 횡포부리는 지주들을 습격해서 곡식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기도 했다.

임꺽정은 황해도에서만 활동하지 않고 도성인 한양에도 근거지가 있었고, 강원도에도 근거지가 있어서 폭넓게 활동했던 거물급 의적이었다. 하지만 조정에서 보낸 남치근한테 결국 잡혀서 서울로 이송되어 결국 사형을 당한다.

2) 우여곡절 끝에 연재된 홍명희의 <임꺽정>

그는 1928년 11월 21일부터 조선일보를 통해 맨 처음 연재되었다. 1929년 12월 26일까지 302회분이 봉단편, 피장편, 양반편으로 연재되고 있었는데 홍명희 선생의 수감생활로 3년간 연재가 중단되었다가 1932년 12월 1일부터 1934년 9월 4일까지 2차로 연재가 되어 의형제편과 화적편의 초반이 쓰여졌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연재가 3년간 중단되었다가 1937년 12월 12일에 다시 연재가 시작되었으나 조선일보의 폐간으로 1939년 3월 11일까지 연재되다가 중단되었다. 이후 단행본으로 일부가 출간되었고 해방 이후에도 을유문화사에서 의형제편 1, 2, 3권과 화적편 1, 2, 3권을 간행하였으나, 1948년 홍명희 선생이 월북하면서 작품은 완결되지 못했다

3) 임꺽정이 실존 인물인 증거, 그는 선인인가? 악인인가?

명종실록에 의하면 임꺽정은 명종 14년부터 시작해서 명종17년 잡혀 처형당할 때까지 황해도를 중심으로 평안, 경기, 강원 지역에서 활약했던 대표적인 도적 우두머리였다.

당시는 정치가 문란하고 관료들의 수탈이 심해지고 여러 해 동안 흉년이 계속되어 백성들의 삶이 힘들었다. 이러한 때에 나타난 임꺽정은 3년이나 관군들의 삼엄한 망에 맞서 활약을 하였다. 당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던 관아나 양반들의 집을 털던 이들은 백성들의 눈에는 그저 의적으로 비춰졌을 지도 모른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임꺽정이 관군을 맞아 3년이나 활약을 한다는 것은 사실 백성들의 도움이 없다면 힘들다는 것.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임꺽정이 나타나도 신고하지 않고 그들의 은신처를 훔 알고 있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임꺽정이 의적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임꺽정의

보복이 무서워서 안 한 것일 수도 있다.

참고 : <명종실록의 기사 - 1560(명종 15) 10월 28일(경신)>

사간원 계에 이르기를,
"황해도 온 도내가 도적의 소굴이 되어 대낮에도 사람을 죽이므로 도로가 막혔습니다. 그네들의 물화를 신고 서울에 소굴을 만들어 놓고는 심지어 조정의 관원이나 감사의 일가라고 사칭하면서 허실을 정탐하기도 하니,..."

4. 홍기문의 생애와 국어연구

20081101 강주희

홍기문(洪起文)은 1903년 충청북도 괴산에서 태어났다. 대하소설 《임궽정》의 저자 홍명희(洪命熹)의 장남이며, 그의 아들 홍석중(洪錫中)은 2004년에 장편소설 《황진이》로 남한의 창작과비평사가 1973년에 제정한 제10회 만해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1922년 중국에서 독립운동가와 중국국민당 인사들과 교류하였으며, 1925년 일본에서 유학하였다. 1925년 안광천(安光泉)·이어성(李如星)·하필원(河弼源) 등이 북성회(北星會)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결성한 사회주의 사상단체인 일월회(日月會)와 조선무산청년동맹회에 가입하였고, 1926년 11월 이종모(李鍾模)·유영준(劉英俊)·박천(朴泉)·정희영(鄭禧泳) 등의 유학생들과 함께 사회주의 사상단체인 신흥과학연구회를 결성한 뒤 귀국하였다.

1927년 12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협동전선체인 신간회(新幹會) 경성지회 선전부 간사에 선임되었다가 1931년 중앙위원이 되었다. 1945년 11월 여운형(呂運亨)이 주도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선전부에서 활동하였으며, 1947년 민주독립당 상무위원에 선임되었다.

이후 월북하여 1948년 8월 황해도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에 선출되었으며, 1948년 6월 남한의 민주주의민족전선, 북한의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 우익의 정당 및 사회단체가 망라되어 결성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서 활동하였다.

1960년 1월 김일성종합대학 교수가 되었으며, 1964년 4월 사회과학원 부원장, 1969년 4월 사회과학원 원장에 임명되었다. 1973년 9월 김일성훈장을 받았고, 1981년 12월 《조선왕조실록》 한글 번역에서 올린 공로로 노력영웅이라는 칭호와 국기훈장 제1급을 받았다. 그는 1992년 북한에서 사망하였다.

한편 3·1운동을 거치면서 뚜렷한 민족의식을 갖게 된 홍기문은 민족을 일깨우는 방법으로 국어를 연구하게 된다. 그는 투옥된 벽초의 서가에서 주시경의 ‘말의 소리’, 김두봉의 ‘조선말본’ 등과 일본어로 된 언어학 이론서를 찾아 읽으며 우리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해방 후 ‘정음발달사’ ‘조선문법 연구’ ‘향가해석’ ‘리두연구’ 등과 같은 국어학사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의 치열한 연구 활동 덕분이었다.

5. 홍석중의 <황진이>에 대하여

20091106 김혜수

1) 줄거리

황진사택의 딸 진이와 그택의 하인인 뉘이는 어린시절 함께 자란 친구지간이었다. 하루는 진이를 데리고 등불구경을 갔다가 진이를 골려줄 작정으로 길가에 버려두고 숨었는데 그일로 뉘이는 황진사택을 떠나게 된다. 10년 뒤 뉘이는 다시 돌아오고 성장한 진이는 혼담이 오간다. 진이를 사랑하는 뉘이는 진이의 출생을 밝힌다. 그일로 정혼자에게서 파혼을 당하고 진이는 어머니의 친딸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 길로 진이는 뉘이에게 순결을 내어주고 기생이 되어 당대최고의 명기가 된다. 죄책감을 느낀 뉘이는 다시 진이의 곁을 떠나고 화적패에 몸담는다. 그 뒤 다시 만난 뉘이는 보물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쫓기다 부상을 입고 있었고 진이는 비로소 자신이 뉘이를 사랑함을 알게 된다. 하지만 뉘이는 관가에 붙잡혀 죽을 목숨이 되고 진이는 뉘이를 찾아가 처음이자 마지막 술잔을 함께한다. 그후 진이는 전국을 떠돌다 생을 마감한다.

2) 실제 인물 황진이란 누구?

조선시대 시인이자 최고의 기녀. 진사의 서녀로 태어났으나, 깊은 학식과 뛰어난 음악적 감각, 빼어난 외모로 더욱 유명하였다. 당대의 일류 명사들과 정을 나누고 벽계수와 깊은 애정을 나누며 독특한 애정관을 표현했다. 당대의 대학자 서경덕을 유혹하였으나 실패한 뒤, 사계관계를 맺었다. 서경덕, 박연폭포와 함께 송도삼절(송도[개성]의 서경덕, 황진이, 박연폭포를 일컫는 말)로 불린다.



3) 황진이 소설의 특징

1.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언어가 섞여 있다.
2. 북한 소설치고는 드물게 남녀의 성관계가 거침없이 묘사되어 있다.

6. 관련 유적 : 홍범식 군수 선정비, 제월대, 홍범식 생가

20091107 나동환

1) 홍범식 군수 선정비



홍범식의 선정을 기리기 위해 1910년 정읍에 세운 것으로 앞면에는 “군수홍후범식에민선정비” 라고 새겼고, 뒷면에는 “여학선치 향인입비송덕 경술입절”이라 했다. 작은 돌거북 위에 비신은 높이1.51m, 폭은 0.53m, 두께는 0.22m이다. 1910년 당시는 금산군수로 있었는데 일제가 강점하자 자결하였다. 그 뒤에 세운 것이다. 구한말에 태인현감을 지냈다

2) 제월대



이곳은 달천강의 지류인 괴강이 내려다보이는 경승지이다. 선조 29년에 충청도 관찰사 유근이 이곳에 고산정과 고산정사를 짓고, 광해군 때에 낙향하여 은거하였다. 중국사신 주지번은 이곳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감탄하여 송나라 주자학의 도학자를 일컫는 광풍명월에 비유하였으며, 달이 제일 먼저 뜬다는 뜻으로 제월대라 불렀다. 주지번이 무릎을 꿇고 큰 바위에 제월대라 글씨를 새겼는데, 지금도 무릎을 꿇은 흔적이 남아 있고 이 바위를 '방구바위'라 전해진다. 이것은 1978년 10월 27일 충청북도기념물 제24호로 지정되었다. 홍범식이 순절한 뒤 집안이 몰락하자 괴산읍내의 생가에서 떠나 이곳 제월대 부근에서 홍명희와 홍기문이 살았다고 한다.

3) 홍명희 생가

문화재청의 문화재명은 괴산 동부리 홍범식 가옥으로 되어 있다. 괴산군청의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주민 중 일부가 월북한 공산주의자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였기 때문에 일제에 항거에 자결한 홍범식 가옥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 이 집도 홍명희 만큼이나 우여곡절을 겪은 집이다. 이 집의 사랑채는 1919년 3·1운동 당시 홍명희가 괴산 지방의 3월 19일 만세 시위를 준비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집은 1984년 중요민속자료 146호로 지정되었던 집이다. 그 후 소유주의 요구로 1990년 문화재의 지정에서 해제되었다가 홍명희가 다시 세상에 주목을 받게 되면서 괴산군청에서 매입하여 다시 복원한 것이다. 훼손되었던 집을 다시 복원을 하려다 보니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라기보다는 셋트 장처럼 보인다. 이 집에서 문화재적인 가치를 찾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집의 문화재적 가치보다는 이 집이 가지고 있었던 특성을 찾아보는 것과 문학사적으로 큰 족적을 남긴 홍명희의 생가였다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의 산실이었던 역사적 가치를 찾는 것이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1. 송시열의 생애

-20091108 노한나

우암 송시열은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문신이자 학자이다. 그는 1607년 11월 12일 충북 옥천군 구룡리에서 태어났다. 송시열은 사계 김장생과 김집의 밑에서 학문을 배워 27세의 나이로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29세에는 봉림대군의 스승이 되었다.

우암은 병자호란이 일어난 후 관직을 내놓고 황간 땅에서 은거하며 학문에 몰두했다. 이때 선생을 묘사한 글 중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 “...독서에만 전념하되 끼니를 걸러도 태연하게 입을 열어 세상일을 말하지 않으며, 혹 종일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기곤 하였다.” 라는 구절이 있을 정도로 학문에 몰두했다.

이 후 여러 번의 퇴직과 관직생활을 반복하였지만 우암의 전생애 중 관직생활은 고작 8년밖에 되지 않는다. 우암은 1689년, 왕세자 책봉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제주로 유배되었다. 그는 국문을 받기 위해 상경하던 도중 정읍에서 사약을 받아 1689년 7월 24일, 83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우암은 평소 매우 검소한 사람이었다. 그는 비단 의복을 몸에 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요를 깔지 않았다. 문인들이 혹 그 이유를 물어보면 “집안이 가난하여 우리 부모 내외께서는 요를 깔지 않고 지내셨는데 내가 어찌 요를 깔고 지내겠는가?” 라고 대답할 정도였다.

송시열의 호 ‘우암(尤庵)’에는 얹힌 이야기가 있다. 송시열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평소엔 사람들을 만나 안부 인사를 제외하곤 말을 하지 않을 만큼 조용한 사람이었으나 학문적 문제 이야기가 나오면 그의 입은 멈출 줄 몰랐다고 한다. 그래서 한번은 김익희가 송시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말이 너무 적어서 할 말도 다 안하는 것이 탓할 일인데 그대는 말이 너무 많으니 그것이 결점이다. 우(尤)자를 넣어서 호를 삼으라.”하였다. 이에 송시열 “좋은 호라면 내가 사양해야겠지만 좋지 못한 호를 어찌 사양하겠는가?” 라고 하며 자신의 호를 우암으로 지었다.

우암은 사상은 주자학이었다. 우암은 주자대전·주자어류의 연구에 몰두하여 주자대전차의·주자어류소본 등의 저술을 남겼다. 또, 그는 이이의 기발이승일도설을 지지하며 일원론적 사상을 발전시켰다.

2. 송시열의 학문경향과 정치사상

20041139 박은서

송시열은 젊은 시절 이이의 학통을 계승한 김장생과 그의 아들 김집의 문하에서 성리학과 예학을 수학했는데 그의 학문은 바로 이러한 기호학파의 학맥을 근간으로 형성되었다. 이기론(理氣論)에서 그는 이황의 이원론적인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배격하고 이이의 기발이 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지지, 사단칠정(四端七情)이 모두 이(理)라 하는 일원론적 사상을 발전시켰다. 또한 정통 성리학자로서 그는 주자의 학설을 전적으로 신봉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평생의 업을 삼았다. <주자대전 朱子大全>·<주자어류 朱子語類>의 연구에 몰두하여 <주자대전차의 朱子大全筭疑>·<주자어류소분 朱子語類小分> 등의 저술을 남긴 것은 이 같은 그의 학문세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학풍은 기본적으로 양란 후의 사회적·정치적 동요를 수습해서 양반지배체제를 재건하고 나아가서는 조선과 명(明)의 '원수'인 청을 물리치고 중화적 세계질서를 회복하고자 한 현실인식의 반영이었다. 곧 주자학의 명분론인 삼강오륜을 사회운영의 원리로 파악하여, 청에 대한 복수의 근거를 명에 대한 강상(綱常)·군신(君臣)의 관계에서 찾았다. 이 같은 북벌론은 당연히 조선왕조의 부국강병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정치적·사회적인 측면에서 송시열이 강조했던 것은 '세도정치론'(世道政治論)이었다. 이는 강성윤리를 기초로 하는 사회기강의 확립과 주자학적인 의리(義理)·도학(道學)의 실현에 목표를 두는 것이었으며, 또 이의 실현주체로서 성학(聖學)의 수양을 쌓은 성인(聖人)으로서의 군주를 상정하는 것이었지만 그러한 군주가 없을 경우에는 현인(賢人) 재상(宰相)이 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세도정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군자당(君子黨)은 노론뿐이라는 당파적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면에서 그는 주자의 교의에서 벗어나 본래의 공맹(孔孟)에서 유학을 재정립하고 군주 중심의 정치운영방식을 추구하고자 했던 허목(許穆)이나 윤휴 등 남인의 학자들과 커다란 차이를 드러냈던 것이다. 복상을 둘러싼 2차례의 예송에 깊이 간여하면서 남인과 대립했던 이면에는 이와 같은 입장의 차이가 있었다. 기사환국으로 노론이 실각하면서 송시열의 이 같은 정치운영론은 일단 실패했으나, 18세기 후반 이후 노론의 일당전제정치 확립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체계로서 정치와 학문 양 측면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였다.

3. 송시열의 시조에 대하여

20071116 박경윤

님이 헤오시메 나는 전혀 미뎃다니
날 사랑하든 정을 뉘손대 움기신고
처음에 뵈시던 거시면 이대도록 설오랴

임(임금)이 헤아려 나를 생각해주시므로 나는 깊이 믿었는데,
나를 사랑하시던 그 정을 누구에게 옮기셨는가?
처음부터 미워하시던 거라면 이렇게 서럽지는 않으리라.

송시열의 작품인 이 노래는 청구영언에 수록되어 있다. 작자는 벼슬에서 자주 물러나 귀양살이를 겪는 고단한 생활을 하였는데, 그 때의 심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사랑을 소재로 하여 노래하였고 감성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 임금의 정에 대한 서러움과 한탄을 주제로 노래한 작품이다.

남성인 시인이 자신을 여성화 하여 쓴 시이다. 이런 수법은 주로 임금을 대상으로 노래를 할 때 쓰이는 표현법이다. 초장의 '님'은 임금을 나타내고 있다. 작자를 그토록 아끼고 미더워하시던 임금이었지만, 유배지에서 그리워 떠올려보니 멀어져간 임금의 사랑이 참으로 서글프고 한스럽다는 내용이며, 애절한 '연군지정'을 읊은 사대부들이 많은 반면에, 임금의 정을 원망하며 솔직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그러나 사실 작자는 임금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만든 소인배들을 한탄하는 것이며 임금과 멀어진 안타까움만을 삼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임금을 대상으로 한 조선시대의 시가에서 보기 드문 표현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님'은 현종일 가능성이 많으며, 작품이 지어진 시기는 1660년 또는 1674년경으로 추정된다.

靑山(청산)도 절로절로 綠水(녹수)도 절로절로
山(산) 절로 水(수) 절로 山水間(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 中(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할이라

푸른 산도 저절로 된 것이며, 맑은 물도 저절로 된 것이다.

이처럼 산과 물이 자연 그대로이니 그 속에서 자란 나도 역시 자연 그대로다.

따라서 자연 속에서 절로 자란 몸이니, 이제 늙는 것도 자연의 순리에 따라가리라.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내용의 노래이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동양의 전통적 사상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마음이 너그럽고 사소한 일에 구애받는 일이 없는 정신적 경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시조는 '근'음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유음으로서 물이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경쾌한 리듬을 주며 시의 주제와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주제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무위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말하고 있다 이 작품의 지은이가 송시열 또는 김인후로 되어 있는 문헌도 있다.

늙고 병든 몸이 초당에 누웠으니
청풍은 문을 열고 명월은 방에 든다
두어라 청풍명월이 내 벗인가 하노라

늙고 병든 몸이 초당에 누워 있는데
맑고 부드러운 바람이 문을 열고 밝은 달은 방을 비춘다.
두어라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 내 벗이노라

이 노래 또한 자연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조화로운 삶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늘 자연이 존재하고 있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지만 그 소중함을 느끼기 힘들다. 하지만 이 노래에서는 사람이 늙어서도 자연과 함께 벗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상적인 삶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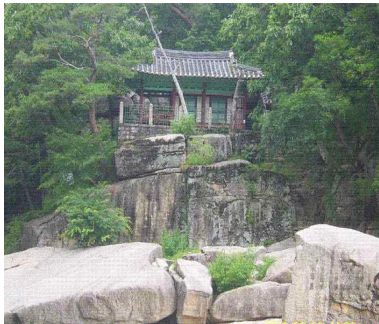
내다보고 있다. 늙고 병들어도 우리와 함께 벗 할 수 있는 것이 자연이 아닐까 라는 자연의 소중함 또한 되새겨 본다.

4. 송시열과 화양구곡

20081106 김정례

우선 화양구곡에 대해 알아보자면 화양구곡은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靑川面) 화양리에 있는 화양계곡이며 조선 중기 우암 송시열 선생이 이곳에 은거하면서 중국의 무이구곡을 본받아 화양동에 9곡(경천벽, 운영담, 읍궁암, 금사담, 침성대, 능운대, 와룡암, 학소대, 파천)의 이름을 지었다. 송시열은 효종과 함께 북벌정책을 계획하는 등 조선후기 주자학의 대가로서 명성을 떨치는데 그의 사후 제자들에 의하여 그를 제향한 화양서원을 만들었다. 그래서 화양계곡으로 들어서면 곳곳에 산재한 그의 흔적과 더불어 그의 생을 되새겨 볼 수 있다.

송시열은 조선의 선조부터 숙종까지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효종과 함께 북벌계획을 추진했던 인물이다. 그 후 송시열이 벼슬을 떠나 머문 곳이 이곳 화양구곡이다.



< ◀ 금사담과 암서재 >

금사담 옆에 암서재를 지어놓고 이곳에 머물렀는데, 후에 후학들이 이 화양구곡에 송시열의 위패를 모시는 화양서원을 열었다. 그 후 조선 말기로 접어들면서 서원들의 횡포가 극에 달했는데, 그때 이곳이 서원 앞이니 말에서 내리라는 의미의 하마소가 생긴 것이다.

후에 흥선대원군은 서원철폐령을 내려 몇 곳을 제외한 나머지 서원들을 강제로 문을 닫게 했는데, 화양서원도 그때 철폐되어 지금은 폐허만 남았다. 하마소를 지나면 바로 만동묘정비가 있던 자리가 나온다. 이 자리는 송시열의 유언에 따라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 임금의 제사를 지내던 곳이라 한다.



< ◀ 읍궁암(泣宮巖) >

화양서원 앞에는 화양서원의 내력을 적어 놓은 화양서원묘정비가 있는데, 이 묘정비 옆으로 내려가면 계곡 건너편으로 있는 읍궁암(泣宮巖)을 볼 수 있다. 읍궁암은 화양구곡의 제3곡으로, 효종이 갑자기 죽자 이곳에 머물던 송시열이 새벽마다 이 바위에 나와 효종을 생각하며 울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바위이다. 그러나 바위 자체는 그리 볼 만한 바위는 아니다.

읍궁암을 200m 정도 지나면 화양구곡의 제4곡인 금사담(金砂潭)이다. 화양구곡 중에서 가장 아기자기한 곳으로 화양구곡에서 으뜸으로 꼽는 곳이 이 금사담이다.



< ◀ 학소대(鶴巢臺) >

금사담 옆으로는 송시열이 머물렀던 암서재(岩棲齋)가 있다. 경치 좋은 금사담 옆 커다란 바위 위에 올라앉은 집으로 우암 선생의 높은 품취와 안목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당쟁으로 평생을 보낸 우암 선생은 거의 선인의 경지에 올랐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암서재의 운치는 단연 돋보인다.

1. 정지용의 발자취

20091109 류호성



정지용은 1902년 5월15일(음력) 충북 옥천군 옥천면 하계리 40번지에서 약종상을 하는 아버지 정태국과 어머니 정미하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지용의 아명은 지룡(池龍)이었다. 연못에서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태몽을 꾸었다하여 그런 아명이 붙여졌다. 이 발음을 따서 본명은 지용(芝溶)으로 하게 되었고 천주교 신자였던 정지용의 세례명은 프란시스코이다.

1918년 옥천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 선배인 홍사용, 박종화, 김영랑, 후배인 이태준을 만나 글쓰기의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박팔양 등 8명과 함께 동인을 결성, 동인지 《요람》을 10여호까지 펴낸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 교내문제로 야기된 휘문사태의 주동으로 이선근과 함께 무기정학을 받아 수업을 받지 못했다. 이 해 12월 《요람》 창간호에 그의 첫 발표작이자 하나뿐인 소설<3인>을 싣는다.

1922년 휘문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첫 시<풍랑뭉>을 썼으며 이듬해 휘문학교의 교비생으로 일본 교토의 도시샤대학 영문과에 입학한다. 재학기간동안 시 <석류> <바다> 등을 썼으며 1926년 《학조》 창간호에 <카페 프란스>등 9편의 시를, 그리고 《신민》《문예시대》에 <홍춘> <산엿색시 들녘사내> 등을 발표 시인으로 등단한다. 1929년 도시샤대학을 졸업하고 고국에 돌아와 모교의 영어교사로 부임한다. 정지용을 기다리던 박용철, 김영랑과 함께 동인지《시문학》을 창간, 순수시운동의 물길을 틈다.

1933년 《가톨릭청년》 창간부터 편집고문을 맡아 신앙시를 발표하고, 이태준, 이무영, 김기림 등과 함께 반 카프적 입장에서 순수문학의 옹호를 취지로 한 『9인회』를 만든다. 또 정지용은 일제강점기에 높은 문학성격을 거둔 《문장》의 시 추천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1939년 『청록파』라는 한국시사의 한 유파를 형성한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을 발굴하였으며 이밖에도 이한직, 박남수, 김종한 등 역량 있는 시인들을 시단에 내놓는데 기여했다.

1941년에 펴낸 두 번째 시집《백록담》에서 정지용은, 백록담으로 상징되는 조국의 자연에 대한 깊은 탐험을 내면의 언어로 형상화시키는 높은 경지를 보여준다.

1946년 이화여전 교수를 사임하고 경향신문 주간직을 맡아, 이 해 《지용시선》을 펴낸다. 그리고 다음 해 경향신문을 나와 다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복직했다가 1년 만에 그만두고 녹번리 초당에서 시작에 전념한다.

1948년에 37편의 시, 수필, 기행문이 수록된 《문학독본》을 출판한다. 이태준이 북으로 넘어가자 그는 "소설가 이태준 군 조국의 서울로 돌아오라"는 글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6·25전쟁이 일어나고 서울을 빠져나가지 못한 그는 정치보위부에 체포, 서울의 정치보위부에 구금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정인택, 김기림, 박영희 등과 같이 수용되었다. 그러다가 평양감옥으로 이감되었다. 그러다 평양감옥이 유엔군의 폭격에 의하여 폭격된 후 행방불명된 것으로 보아 폭사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감각, 그리고 또 감각

-정지용의 시세계-

20041148 석민수

정지용 시인은 당시 1920년대 시의 경향인 풍부한 감정의 직설적 표현을 자제하고 그 감정을 객관화시켜 시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그의 시는 평론가로부터 작품에 드러나는 사상이 부족하고 인간에 대한 탐구가 미진하다는 평도 받고 있다.

그의 초기시와 후기시는 나름대로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초기시는 대체로 바다, 후기시는 산을 이미지로 차용하고 있다.

초기시인 『바다 1·2』, 『갑판우』, 『풍랑몽』, 『해협의 오전2시』 등 바다 계열의 시들은 밖에서 밀려 들어오는 것, 즉 새로운 것들에 대한 지향성이 표출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초기시에 해당하는 『카페프란스』의 시어를 예로 들면 “이놈은 루바쉬카”, “또 한놈은 보헤미안 넥타이”, “페이브먼트에 흐느끼는 눈빛” 등의 외래적 표현이 다수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로 볼 때 그의 초기시는 외래적 감수성이나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기시라 할 수 있는 『장수산』 연작과 『비로봉』, 『백록담』, 『구성동』, 『온정』 등의 시에서는 전통적인 동양적 감수성이나 고전적인 정서와 감각이 드러난다. 그의 후기시중 하나인 『구성동』의 시문을 예로 들어보면 “꽃도 귀양 사는 곳”, “절터스드렸는데 바람도 모이지 않고”, “산 그림자 설핏하면 사슴이 일어나 등을 넘어간다” 등의 시어들은 상당히 동양적이면서 고전적인 면을 볼 수가 있다. 이런 경향을 볼 때 정지용은 모더니즘에서 전통 산수주의로의 회귀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서양적 세계관과 동양적 세계관의 혼재, 한국적 전통 지향성과 모더니티 지향성의 갈등 속에서 결국 우리 것의 세계를 택한 것이다.

아울러 정지용의 시에서 빼 놓을 수가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향과 향수의 세계이다. 정지용의 시 『고향』과 『향수』는 가장 대중적이면서 크게 부각되었다. 사람이기에 고향이 있고 그리움을 느낀다. 그의 시 『고향』에서는 변해버린 고향의 상실감이 잘 드러나 있다. 『향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아련하게 그리고 있는 시이다. 이 두시는 상당히 인간적이며 보편적이고 항구적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바탕으로 나름 정지용의 시세계를 요약하자면 “감각, 그리고 또 감각이다. 다른 시인이 사용치 않은 그만의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이다.

봄날 정지용 시인이 살아계셨다면 지금을 시로 어떻게 표현했을지 궁금해진다.

3. 그가 그린 바다의 마지막 이미지 -<바다9> 이해-

20041148 석민수

바다는 뿔뿔이
달어 날라고 했다.

푸른 도마뱀떼 같이
재채발렸다.

꼬리가 이루
잡히지 않았다.

흰 발톱에 찢긴
산호보다 붉은 생채기!

가까스루 몰아다 부치고
변죽을 돌려 손질하여 물기를 시켰다

이 엘쎈 해도海圖에
손을 씻고 떼었다.

찰찰 넘치도록
돌돌 구르도록

희동그란히 받쳐 들었다.
지구는 연잎인양 오프라들고.....떠고.....

이 시는 8연 16행으로 이루어진 시이다. 정지용의 시중 바다를 배경으로 한 시 중에서 가장 마지막 순번의 시이다.

정지용 시인이 쓴 바다시를 전체적으로 보면 다양한 심상과 독특한 시어로, 나타내고자 하는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 작품 역시 바다를 감각적 형상으로 이미지를 극대화 시키고 있다.

1연에서는 한 결로 밀려왔다 쓸려가는 파도가 아닌 제각각으로 치대는 파도를 묘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2연은 파도를 날싸고 혼잡스러운 푸른 도마뱀 떼로 표현하여 파도의 시각적 이미지를 돋보이게 함과 동시에 역동성까지 더하고 있다.

3연은 2연과 이어져 파도의 재빠름을 강조하고 있다.

4연에서는 파도의 시각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파도칠 때 일어나는 포말을 흰 발톱으로 물을 붉은 산호로 표현하여, 파도가 물에 닿는 장면을 이미지화 하고 있다.

5연은 멀리서 일어난 파도가 가까스로 물에 닿고 그 주변을 적시는 것을 이미지화 한 것으로 보인다. 어찌보면 파도의 행위는 참으로 부질없어 보이기도 한다. 가까스로 물에 닿아 하는 일이 물기를 씻는 일이라니. 끝이 보이지 않을 내일까지 이 작업은 멈추지 않을 것 같다.

6연은 시인이 그린 바다의 이미지, 즉 해도라고 표현한 그 동안의 작업이 종료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시가 바다를 주제로 한 마지막 순번의 시라는 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7연은 바다의 청각적 심상을 부각시키고 있다. 찰찰과 돌돌은 파도소리의 경쾌함과 시적인 리듬감, 그리고 바다의 면적감을 두루 나타내고 있다.

시의 끝자락인 8연은 이 시를 음악으로 따지자면 클라이막스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바다는 지구 안에 있다. 그러나 지구는 푸른 별이다. 시인은 지구의 색깔까지 고려하여 바다가 지구를 동그랗게 받쳐들고 있고, 파도가 밀려들고 빠지는 모습을 연잎처럼 오프라들고 띄는 것으로 이미지화 한 것으로 보인다.

한 시인의 눈에서 읽혀지는 바다의 심상과 개성이 이렇듯 다양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 전적으로 시인의 감수성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끊임없이 절차탁마한 그의 시어와 시를 향한 열정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면 단지 숫자에 불과한 바다시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생각하건대, 그는 이미지화의 가려진 천재임이 틀림없다.

4. <유리창 1>의 이해

20091111 박경하

유리창 1

유리(琉璃)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백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거나,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山)새처럼 날러갔구나!

이 시는 “정지용이 어린 딸을 잃고 비애의 절정에서 쓴 시”라고 한다. 정지용이 29세 되던 1930년에 쓴 것으로, 자식을 잃은 젊은 아버지의 비통한 심경을 주제로 하면서도 그것을 절제된 언어와 시적 형상으로 객관화한 점이 인상 깊은 시이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나타낸 시어는 겨우 1행의 '슬픈'과 8행의 '외로운' 정도로, 그것도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처럼 감정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처럼 표현했다. 정지용 자신이 바로 슬픔의 주체인데도 오히려 슬픔의 바깥쪽에서 그것을 관망하는 제 삼자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또 자식을 잃은 슬픔이 엄청나게 클 텐데도 시를 쓰면서 그 슬픔을 아름다운 예술로 다다르게 하는 것을 보면서 시인은 진정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시구를 살펴보면 “차고 슬픈 것”, “언 날개를 파다 거린다”, “물 먹은 별”, “유리”,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같은 시구가 있다. 이들 시구를 하나하나 이해해 보자면, “차고 슬픈 것”이라는 문구는 죽은 아이를 가리키는 문구이다. 창 밖에 있어서 차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미 죽고 저세상의 사람이기 때문에 “차고 슬픈”이라고 표현을 했다. 또한 “언 날개를 파다거린다”라는 시구는 죽은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연약한 새의 날개로 표현을 했고, 죽었기 때문에 “얼다”라는 표현을 썼다.

“물 먹은 별”이라는 시구도 있는데, 이는 시인이 죽은 아이를 생각하면서 울기 때문에 별이 물 먹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묘사한 시구이다. “유리”는 이미 죽은 어린 자식과 화자를 갈라놓는 창문의 벽을 가리킨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인 것이다. 원치 않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훌쩍 떠나버린 자식, 아버지의 슬픔은 끝내 차가운 유리벽 저 편에 있을 어린 자식을 보고 싶어 한다. 마지막으로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라는 시구는 화자의 아이가 폐에 관련된 질병으로 죽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시구이다.

이 시를 내가 이해한 대로 다시 써 보면, “유리창 너머로 어린 자식이 찾아오기라도 한 듯이 무엇인가 차고 슬픈 것이 어른어른 비친다. 허탈한 슬픔 속에서도 창에 입김을 붙어 얼어붙은 성애를 녹여 내린다. 그러자 어린 자식의 모습이 언 날개를 파닥이면서 와 닿는다. 선뜻 떠나기 아쉬워 마지막 작별 인사라도 다시 하기 위해 찾아온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환영일 뿐 지우고 보고 지우고 또 보아도 어둠만이 짙게 깔려 있을 뿐이다. 이때 별 하나가 어둠 속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보석처럼 반짝인다. 아마도 저 별은 어린 자식의 화신임이 분명하다. 밤에 홀로 유리창을 닦는 것은 외로운 일이긴 하지만 보고 싶은 어린 자식(반짝이는 별)을 바라볼 수 있음으로 해서 황홀함을 느끼기도 한다. 아, 너는 가녀린 폐혈관이 파열되어 슬픔만 남겨 둔 채 산새처럼 저 어둠의 깊은 세계로 날아갔구나.”로 쓸 수 있겠다.

시인은 비록 아픔을 안고 이 시를 썼지만, 그 아픔이 찰진 밀거름이 되어 오늘날까지 아름다운 작품으로 남았으니 오늘 나도 아파보고 싶다.

5. <향수> 이해하기

20081111 김주경

넓은 별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
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옅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베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 빛이 그리워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
풀섰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뻐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하늘에는 석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깃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
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정지용의 초기시의 하나로, 1930년대에 지니게 되는 이미지적인 시풍과는 달리 고향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을 감성적으로 나타내었다.

그는 충북 옥천(沃川)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도쿄에 유학하던 1923년경에 이 작품을 썼다고 한다. 작품에서 그리고 있는 공간은 당시의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농촌이며,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또한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 보편적인 가족의 모습이다. 그런 뜻에서 이 작품은 특정한 개인의 체험을 넘어서서 한국인이 지닌 향수의 보편적 영상으로 수용될 만하다.

작품은 모두 다섯 부분으로 나뉘는데, 각 부분마다 고향의 모습을 회상하는 연이 먼저 오고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라는 독백이 이어짐으로써 간절한 그리움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반복의 수법은 무척 단순한 것이지만, 그 어떤 복잡한 기교보다도 절실하게 시인의 심경이 드러난다..

다섯 부분의 구성은 순탄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교묘하다. 첫째, 셋째, 다섯째 부분은 포근함과 아름다운 꿈이 서려 있는 고향의 모습이다. 둘째, 넷째 부분은 가난하고 고단한 삶의 모습이 담긴 고향을 보여 준다. 작품 전체는 결국 이 두 가지 빛깔로 채색된 고향의 모습이 차례로 엇갈리면서 전개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두가 사랑스럽고 그리운 삶의 원천으로 절실하게 결합한다. 그래서 시인이 노래하는 향수의 깊은 호소력이 짙어 보인다.

1. 만해 한용운의 생애

20091112 박 빛



한용운은 1879년 8월 29일 충청남도 홍성에서 출생하였다.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다가 동학농민운동에 가담했으나 실패하고 1896년에 설악산에 있는 오세암에 들어갔다. 그 뒤 1905년에 인제의 백담사에 가서 연곡을 스승으로 삼아 승려가 되었고 만화에게서 법을 받게 된다.

또 1908년에는 전국 사찰대표 52인의 한 사람으로서 원흥사에서 원종종무원을 설립하였고 그 뒤 일본으로 건너가 신문명을 시찰하였다. 그 뒤 1910년에 국권이 피탈되자 중국으로 가서 독립군 군관학교를 방문하였다, 또 이를 격려하고 만주·시베리아 등지를 방랑하다가 1913년에 귀국하였다. 그 후 불교학원에서 교편을 잡았다. 이 해에 범어사에 들어가서 《불교대전》을 저술하였고, 대승불교의 반야사상에 입각하여 종래의 무능한 불교를 개혁한후 불교의 현실참여를 주장하였다.

1916년에는 서울 계동에서 월간지 《유심》을 발간하였고, 1919년 3·1운동 때에는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체포되어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1926년에 시집 《님의 침묵》을 출판하여 저항문학에 앞장을 섰고, 이듬해에는 신간회에 가입하여, 이듬해 중앙집행위원이 되어 경성지회장의 일을 맡았다.

그 후 1931년에 조선불교청년회를 조선불교청년동맹으로 개칭하고, 불교를 통한 청년운동을 강화하였다 이 해에 월간지 《불교》를 인수하고, 이후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불교의 대중화와 독립사상 고취에 힘을 썼다. 1935년에는 첫 장편소설 《흑풍》을 《조선일보》에 연재하였고, 1937년 불교관계 항일단체인 만당사건의 배후자로 검거되었다. 그 후에도 불교의 혁신과 작품 활동을 계속하다가 서울 성북동 심우장에서 중풍으로 돌아가신다.

작품으로는 상기 장편 외에 장편소설인 《박명》이 있고, 저서로는 시집 《님의 침묵》을 비롯하여 《조선불교유신론》 《십현담주해》 《불교대전》 《불교와 고려제왕》 등이 있다. 또 1973년 《한용운전집》(6권)이 간행되었다.

2. 만해 한용운의 시세계

20091114 박지훈

만해 한용운의 시어에는 ‘당신’이란 대명사가 많이 쓰이고 있다. 혹은 ‘님의 침묵’에서처럼 ‘님’도 그의 시에서는 자주 등장하곤 한다. 시가 해석되는 데에 있어 시어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작가의 연보나 당대의 시대적 상황이 뒷받침 되어야 시어의 해석에 원활한 의미

를 부여 할 수 있겠다. 이미 한용운의 시는 교과서에 많이 다루어져 있고 민족시인이라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많은 평론가들에게 있어 한용운의 시는 교과서적인 해석과 그 해석된 자료로 인식하고 있어, 그의 시세계의 다른 면을 보기란 쉽지가 않을뿐더러, 그 모험 자체가 혈기로써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새로운 해체적인 시세계를 드러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차후 세대에게는 이 시가 교과서적인 방식으로 읽혀지고, 현재의 시전에서 바라보는 다른 면의 시세계를 함구하게 만들고, 오로지 작품세계가 교과서적으로 읽혀지기만 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암기식의 편린들만 남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시도자체가 무의미한 모험 일수 있겠으나, 우리의 아픈 역사를 젊은 청년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민족성, 역사성 등을 한용운의 시세계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는가, 혹은 그의 시에서 세대간의 소통적인 구실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다.

한용운의 시에서 자주 쓰이는 ‘당신’의 주체는 민족성을 부여하는 주체이며,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는 주체이며, 모국어의 주체성이며, 권리나 주권 등을 내세울 수 있는 근거의 뿌리인 셈이다. 이렇게 말 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말했듯이 그의 시는 시대성의 색채가 강하기 때문이다. “당신을 보았습니다”의 시에서 ‘당신’이 당신으로 존재하였다면 대상이 조국이 아닌 사랑으로 불러졌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빼앗긴 조국으로 불려지고 있다. 2연에서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의 조국 상실에 대한 비참함을 드러내고 있고, ‘당신’을 더 간절히 부르고 있는 것일 지도 모른다. 주권상실의 비참함은 2연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거지는 인격이 없다??’처럼 조국을 잃은 것은 비애로써 그칠 만 한 아픔은 아니다.

민족은 인권, 그리고 정조, 능욕, 장군으로 상실감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때론 작자 자신도 이성을 잃고 격분을 하지만 그 속에서 ‘당신’을 보고 가라앉힌다. 그렇다면 ‘당신’의 존재는 시인을 격분시키기도 하면서 그의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는 인칭대명사다. ‘당신’이 없어서 슬픈 것인데, ‘당신’이 종교적인 존재로 나타나 흥분을 삼시간에 가라앉히는 능력, 그것은 당신의 의미가 다른 용도로 쓰여서 일 것이다.

‘당신’은 어떤 면에서 절대적 일 수 있다. 인간이 인간에 의해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무형의 존재에 의해 작자는 스스로없이 수용하고 마음을 움직였다. 그와의 대화 속에서 화자는 기도문처럼 독백이지만 ‘당신’의 주체는 실존적인 그림이다. 마치 무속의 힘처럼 그 힘을 비어 인간의 나약함을 확인하기 보다는 ‘당신’이란 주체를 지향하고 그 주체의 상실감에 ‘당신’을 찾고, 3연에서 드러난 것처럼 윤리, 도덕, 법률 같은 것이 ‘당신’의 품의 것인데, 상실 속에서의 ‘당신’이 지닌 성격을 바라보는 것이다. 인간이 무형적인 절대자를 찾는다면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과 그 절대적인 존재로 하여 실현 할 수 없는 현실을 극복하려는 이상한 정조로 보일 수 있겠으나, 한용운은 ‘당신’을 추상적으로 몰고 가지는 않았다. ‘당신’이란 근본은 존재의 뿌리를 두고 일컫는 말일 것이다. 마지막 연에서 상실감을 느끼며 방탄과 무력감을 갖으려 하였으나 ‘당신’이 비취지는 거울 속에서 비취지는 희망을 내비치고 있다. 이처럼 그의 시 속에 자주 등장하는 ‘당신’이란 시어가 자기 마음속에 자주 들락날락 하며 갈등을 유발시키며 싸움을 걸어온다. 즉 ‘당신’의 존재는 종교적이 아니면서 절대적이며, 신이 아닌 작자의 내면세계에 머물고 바로 ‘당신’을 말하는 다른 자화상일 것이다. 몸속에 혹은 영혼 속에 존재한다고 하여도 자기 자신과 분류되지 않은 채 한 곳에서 머물며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진실성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3. <님의 침묵>의 이해

20081116 문숙경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참어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든 옛 맹서는 차디찬 띠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
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둥니다.

작품 「님의 침묵」은 시집 『님의 침묵』의 첫 작품이다. 『님의 침묵』의 위대성은 시대성, 사상성, 문학성이라는 삼위일체의 복합적 상징성에서 유래한다. 필자는 민족적 차원(시대성)과 불교적 차원(사상성), 남녀의 애정(문학성)이 모두를 포괄하여 ‘님’을 ‘본래성 회복에의 한 표상’으로 보았다.

『님의 침묵』의 감상은 사랑하는 남녀 관계의 입장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님’은 본래성 회복을 염원하는 만해(卍海) 한용운의 열망을 그대로 담고 있는 상징 언어임이 분명하며, 시종일관 역설구조로 되어 있다.

『님의 침묵』은 이별과 사랑 그리고 만남의 의미를 총괄하면서 함축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 이해의 핵심은 처음과 끝 부분의 상관성에 있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라는 이별의 아픔과 탄식으로 시작하나 둘 사이의 첫 만남[불교적으로는 견성]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꿀 만큼 순수하고 뜨거운 것이었기에 시적 화자는 이별의 아픔을 극복한다. 그리하여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사랑의 깨달음을 외치게 된다. 여기서 ‘나’는 현실인으로서 만해가 아니며, 작품 속의 시적 화자임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시적 화자인 ‘나’는 사랑하는 님과 이별한 여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님의 침묵』은 『십현담주해』를 배경으로 하여 창작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주객이 대립하는 상대적인 세계를 벗어나고 보면, 존재자의 참모습은 변함이 없이 항상 빛난다는 선의 세계를 표현한 말이다.

‘님’과 이별했을 때 ‘님’의 진정한 가치가 찾아지며, ‘님’이 침묵할 때 오히려 ‘님’의 진정한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다. 이때 비로소 ‘나’는 ‘님의 침묵’ 속에 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터져 나온다는 것이다.

「님의 침묵」의 마지막 행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둥니다.”는 불립문자의 경지인 선의 세계에서 침묵은 우뢰보다 더 큰 ‘진리의 소리’를 의미한다. 이 시는 결국 ‘님의 부재(不在)’ 상태에서 오히려 님의 사랑을 실감하는 시적 화자의 역설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4. <나룻배와 행인>의 이해 -한용운의 두 님-

20051103 교장기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밭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 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인 한용운의 사상이 잘 드러나 있으며, 《님의 침묵》과 같이 이 시에서도 님의 대한 기다림과 헌신적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 한용운의 시는 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만 이 사랑은 이별의 충격과 험난한 과정을 거친 재회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다.

그의 시에 나타난 기다림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볼 수 있는 기다림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적극적 기다림이다. 따라서 그의 시에서 일관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는 역설의 미학인 것이다. 나의 고통이 님의 새 생명 속에 화해되는 과정이 이 시에서 역시 나타나 있다. 시인의 기다림은 차안(此岸)에서 피안(彼岸)으로 건너가는 절대자와의 합일에 대한 기다림일 수도 있고, 조국 광복의 날에 대한 민족적인 기다림일 수도 있다.

시인은 자신을 나룻배로, 부처 또는 민족을 당신으로 비유하고 있다. 물은 고해(苦海)이며 세상이다. 님의 권위는 절대적이며 나는 나약하고 비천한 존재로 그려진다. 금강경(金剛經)에 차안에서 피안으로 건너갈 때 필요했던 뗏목은 쓸모없다는 말이 있듯이 나는 기다림의 속성으로 태어난 존재이며, 당신이 강을 건너면 다시 돌아보지도 않고 길을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나룻배와 행인의 관계는 주종관계이며, 지배자와 복종자 사이의 논리에 따른다. 그러나 그 복종 또는 기다림은 기쁨에서 우러난 것이며, 자발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의 본질은 자비와 인내를 바탕으로 한 희생과 믿음임을 노래하고 있다. 특히 나룻배라는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주제를 비유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으며, 특별한 기교 없이 평범하고 쉬운 우리말로 정감의 절실한 깊이를 노래한 시이다.

5. 만해 한용운의 발자취

20091115 배민지

1. 홍성생가

승려이며 시인인 한용운(1879~1944) 선생의 생가는 홍성군 결정면 성곡리 492번지에 있다. 생가는 행랑채도 없는 시골의 전형적인 초가집이다. 낮은 야산을 등진 양지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생가가 쓰러져 없어진 것을 1992년에 복원하였다. 그리고 그곳에는 “자유는 만유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라.” 라고 새겨진 어록비가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생가 뒤편에는 “만해사(卍海祠)”라는 사당이 있다. 사당에는 만해 한용운선생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2. 백담사와 오세암

한용운은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다가 동학농민운동에 가담했으나 실패하자 1896년 설악산 오세암(五歲庵)에 들어갔다. 그 뒤 1905년 인제의 백담사(百潭寺)에 가서 연곡(連谷)을 스승으로 승려가 되고 만화(萬化)에게서 법을 받았다.

백담사는 내설악의 아주 깊은 오지에 자리잡고 있어 옛날에는 사람들이 좀처럼 찾기 힘든 수행처였다. 만해 한용운선사는 1905년 이 곳 백담사에서 머리를 깎고 입산수도하여 깨달음을 얻어 <조선불교유신론>과 <심현담주해>를 집필하고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발표하는 등 불교유신과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일제의 민족 침탈에 항거하여 민족독립운동을 구상하였던 독립운동의 유적지로서도 유명하다.

현재 백담사에는 법당 등 불교 건물 외에 만해 한용운 선사의 문학사상과 불교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만해기념관, 만해교육관, 만해연구관, 만해수련원, 만해당 등이 있다. 백담사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선원으로 지정되어 갖 득도한 승려들이 참선수행을 하고 있다.

오세암은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백담사의 부속암자이다. 백담사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영시암을 지나 마등령으로 가는 길에 있다. 1445년 생육신의 한 사람인 김시습(金時習)이 이곳에서 출가하였고, 1548년 보우(普雨)가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문정왕후에 의해 선종판사로 발탁되었다. 1643년 설정(雪淨)이 중건하고 오세암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3. 서울 심우장

1985년 7월 5일 서울특별시기념물 제7호로 지정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33년에 만해 한용운이 지은 집으로 남향을 선호하는 한옥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북향집이다. 독립운동가였던 그가 남향으로 터를 잡으면 조선총독부와 마주보게 되므로 이를 거부하고 반대편 산비탈의 북향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심우장(尋牛莊)이란 명칭은 선종(禪宗)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잃어버린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한 열 가지 수행 단계중 하나인 ‘자기의 본성인 소를 찾는다’는 심우(尋牛)에서 유래한 것이다.

한용운이 쓰던 방에는 그의 글씨, 연구논문집, 옥중공판기록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만해가 죽은 뒤에도 외동딸 한영숙이 살았는데 일본 대사관저가 이 곳 건너편에 자리 잡아 명륜동으로 이사를 하고 심우장은 만해의 사상연구소로 사용하고 있다.

1. 정극인(丁克仁)의 생애

20091116 백민혜



<정극인 동상과 가사비>

정극인(1401-1481)은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학자이다. 본관은 영성, 자는 가택, 호는 불우현·다현 또는 다각이다. 경기도 광주 출신이며 진사 곤의 아들이다.

1429년에 생원이 되었고 여러 번 과시에 응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470년에 나이가 많아서 관직을 내어놓고 물러나 귀향하여 후진양성에 힘썼다. 1472년, 영달을 구하지 않고 향리 자제를 교화한 공으로 은영이 내리자 이에 감격하여 <불우현가>·<불우현곡>을 지어 이를 송축하였다. 1481년에 그는 안빈낙도하면서 81세로 별세하였다. 문학에도 특출한 재능을 보여 최초의 가사작품으로 알려진 <상춘곡>과 단가 <불우현가>, 한림별곡체의 <불우현곡>등을 지어 한국시가사에 공헌하였다.

정극인은 원래 광주 두모포리 태생인데, 처가가 태인인 까닭으로 이곳에 우거하게 된 것이다. 정극인에 대한 행적의 기록은 그의 문집인 불우현집에 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의 생애와 철학, 그리고 시문 등의 한문학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적은 편이어서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극인의 국문시가에 대한 업적은 대단하다. 국문시가인 상춘곡은 가사의 표시 작품으로 그 위상이나 가치가 어떤 작품보다도 중요하다. 정극인의 문집인 불우현집이 전하고 있는 한시문은 운문인 한시가 약 57편 실려 있고 대체로 절구와 율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가 남긴 작품이 50-60편으로 적은 점은 그가 창작한 작품이 모두 전승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극인의 문집에 수록된 한시들은 아직까지 연구한 사람이 없었다. 정극인의 한시에 나타난 그의 예술적 재능이 어떻게 작품에 투영되어 나타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2. <상춘곡>의 문학사적 의의

20091117 백소영

1) <상춘곡>의 개요

이 작품은 3·4조, 전장 79구로 이루어진 가사로, 작자(정극인)가 고향에 돌아와 자연에 묻혀 살 때 지은 것이다. 속세를 떠나 자연에 몰입하여 인생을 즐기는 지극히 낙천적인 성격의 노래이다. 표기법은 창작 당대(15세기)의 것이 아니고, 후손에 의해 <불우헌집>이 간행된 18세기의 음운과 어법에 따르고 있다.

2) <상춘곡> 원문과 해석

紅塵(홍진)에 못친 분네 이내 生涯(생애) 엇더하고, 냇 사름 風流(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과, 이 나의 생활하는 모습이 어떠한가? 옛 사람의 운치 있는 생활을 내가 따를까, 못 따를까?
天地間(천지간) 男子(남자) 몸이 날만흔 이 하건마는, 山林(산림)에 못쳐 이서 至樂(지락)을 맛들 것가.
천지간 남자로 태어난 몸으로서 나와 같은 사람이 많건마는, 어찌하여 그들은 나처럼 산림에 묻혀 사는 자연의 지극한 즐거움을 모른단 말인가?
數間茅屋(수간 모옥)을 碧溪水(벽계수) 앞피 두고, 松竹(송죽) 鬱鬱裏(울울리)에 風月主人(풍월 주인) 되여셔라.
초가삼간을 맑은 시냇가 앞에 지어 놓고, 송죽이 울창한 속에 풍월주인이 되어 있도다.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桃花杏花(도화 행화)는 夕陽裏(석양리)에 뛰여 있고, 綠楊芳草(녹양 방초)는 細雨中(세우 중)에 푸르도다.
엇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복사꽃 살구꽃이 석양 속에 피어 있고, 푸른 버들 꽃다운 풀은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造化神功(조화 신공)이 物物(물물)마다 현스롭다.
조물주가 칼로 재단해 내었는가? 붓으로 그려 내었는가? 조물주의 신기한 재주가 사물마다 야단스럽다.
수풀에 우는 새는 春氣(춘기)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嬌態(교태)로다.
숲 속에 우는 새는 봄 기운을 끝내 이기지 못하여 소리마다 아양을 떠는 모습으로다.
物我一體(물아 일체)어니, 興(흥)이익 다들소나. 柴扉(시비)에 거러 보고, 亭子(정자)에 안자 보니, 逍遙吟詠(소요 음영)하야, 山日(산일)이 寂寂(적적)흔디, 閒中眞味(한중 진미)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물아일체어니, 흥이야 다르겠는가? 사립문 주변을 걸어 보기도 하고, 정자에도 앉아 보며, 이리저리 거닐며 나직이 시를 읊조려, 산 속의 하루가 적적한데, 한가로움 속의 참다운 즐거움을 아는 이 없이 나 혼자로우나.
이바 니웃드라, 山水 구경 가자스라. 踏青(답청)으란 오늘 하고, 浴沂(욕기)란 來日(내일)하세. 아침에 探山(채산)하고, 나조히 釣水(조수)하세.
여보게 이웃 사람들과, 산수 구경 가자꾸나. 산책은 오늘 하고, 냇가에서 목욕하는 일은 내일 하세. 아침에는 산에서 나물을 캐고, 저녁에는 고기를 낚세.
갓 피여 닌은 술을 葛巾(갈진)으로 밧타 노코, 꽃나무 가지 것거, 수도코 먹으리라. 和風(화풍)이 건듯 부러 綠水(녹수)를 건너오니, 清香(청향)은 잔에 지고, 落紅(낙홍)은 옷새 진다.
이제 막 익은 술을 두건으로 걸러 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잔 수를 세면서 술을 먹으리라. 화창한 봄바람이 문득 불어 푸른 들을 건너오니, 맑은 향기는 술잔에 가득하고, 붉은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

樽中(준중)이 뷔엿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술독이 비었으면 나에게 알려라.
小童(소동) 아히드려 酒家(주가)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집고, 아히는 술을 메고, 微吟緩步(미음 완보)하야 시냇그의 호자 안자, 明沙(명사)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清流를 굽어보니, 셔오 느니 桃花(도화)로다.
아이에게 술집에 술이 있는지 물어 술을 사다가, 어른은 지팡이 짚고, 아이는 술동이를 메고, 나직이 흥얼거리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 고운 모래 바닥을 흐르는 맑은 물에 잔을 씻어 들고, 맑은 시냇물을 굽어보니, 떠오르는 것이 복숭아꽃이로구나.
武陵(무릉)이 갓잡도다.
무릉도원이 가까운 듯하다.
저 띠이 큰 거인고. 松間 細路에 杜鵑花(두견화)를 부치 들고, 峰頭(봉두)에 급파 올라 구름 소귀 안자 보니, 千村萬落(천촌 만락)이 곳곳이 버려 있네. 煙霞日輝(연하 일휘)는 錦繡(금수)를 재밋는 듯.
아마 저 들이 무릉도원인가? 소나무 숲 사이의 좁은 길에, 진달래꽃을 붙들고,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으니, 수많은 촌락은 여기저기 벌여 있고 안개와 놀과 빛나는 햇빛은 비단을 펼친 듯 아름답구나.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有餘(유여)홀사.
엇그제 거뭇거뭇한 들에 봄빛이 넘쳐흐르는구나.
功名(공명)도 날 켜우고, 富貴(부귀)도 날 켜우니, 淸風明月(청풍 명월) 外(외)에 었던 벼이 잇스올고. 簞瓢陋巷(단표 누항)에 호튼 혜음 아니 흐니. 아모타, 百年行樂(백년 행락)이 이만흔들 었지흐리.
부귀공명이 날 꺼리니(내가 부귀공명을 싫어하니) 아름다운 자연 외에 어떤 벼이 있으리오. 누추한 곳에서 가난한 생활을 하여도 잡념은 아니하네. 아무튼 한평생 즐겁게 지내는 일이 이만하면 족하지 아니한가?

3) <상춘곡>의 분석

(기)에는 대자연의 주인이 된 화자의 기쁨과 여유가 있는 유유자적(悠悠自適)한 생활 태도가 잘 나타나 있다.

(승)과(전)에서는 봄 경치를 즐기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감상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할 만큼 묘사가 뛰어나다.

(결)에는 부귀공명(富貴功名)으로부터 자유로워진 화자가 자연에 귀의하고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대구법, 의인법, 설의법, 직유법 등 수사법이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고사를 자유자재로 인용하고 있다.

4) <상춘곡>의 문학사적 의의

한국의 시가문학상 가장 큰 꽃을 피웠던 가사는 정극인으로부터 발단되었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최초의 가사작품은 정극인의 <상춘곡>이라는 설이 널리 인정받고 있다. <상춘곡>은 뒤이어 오는 송순의 <면앙정가>에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정철의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에서는 강호한정(江湖閑情)의 절정에 이르렀다. 또한 조선시대 사대부가사의 첫 작품이며 산림처사(山林處士)로서의 은일생활(隱逸生活)을 노래하여 사림과 문학의 계기를 마련한 작품이다. 이 작품의 창작을 계기로 강호가도(江湖歌道)의 시풍이 형성되었으며, 가사문학이 발생되고 우리나라 시문학 역사에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3. 정극인 관련 유적

20091118 승인정

1) 무성서원



1968년 12월 19일 사적 제 166호로 지정되었다. 무성서원은 1696년(숙종 22) 사액을 받아 사액서원인 무성서원이 되었다. 문루인 현가루는 두리기둥을 쓴 정면 3칸, 측면 2칸 기와집이고, 그 안에 정면 5칸, 측면 2칸의 단층 기와집인 강당인 명륜당이 있으며, 오른쪽에 4칸의 강수재 왼쪽에 3칸의 홍학재가 있어 동서재를 이룬다.

2) 영광 도동리 홍교(문화재 자료 제01900000호)



조선 성종 때 불교를 배척하였던 정극인의 공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다리라고 전한다. 실제 다리는 옛 성이 있었을 당시 나주와 함평 등지에서 영광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었으나, 현재는 본래 모습이 훼손된 채 논밭으로 가는 샛길과 하천 옆길을 잇는 다리로 쓰이고 있다. 다리는 양끝이 처지고 가운데는 무지개처럼 둥글게 굽은 구조로 되어 있다.

13개의 넓직한 돌을 이용하여 단순한 형태로 견고하게 쌓아올린 모습이나, 9개의 부재로 구성된 것처럼 보인다. 인위적이고 세련되던 다른 홍교와는 달리, 꾸미지 않은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멋이 나는 다리이다.

3) 상춘곡 가사비와 정극인 동상



1984년 9월 11일 정읍 군수가 정극인의 대표작인 상춘곡비를 세웠다. 그 바로 옆에 정극인의 동상도 세워져있다. 영광정씨로 어려서 부모를 따라 선대의 고향인 영광에 가서 자랐던 정극인은 1429년 29세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서울의 태학관에서 수학하였다.

4) 이글을 마치면서....

글로만 봤던 상춘곡의 배경을 찾으면서 상춘곡과 더욱더 친해지는 느낌이었고, 고등학교 때는 없던 탐방이라는 답사를 계기로 정읍마을을 가는데 요번에 부족했던 점을 현장에서 직접 보며 보완하겠다.

4. 정읍사 소개

20051144 홍현진

1) 개요

정읍사는 백제 현전 유일 가요이며, 한글로 표기되어 전하는 가장 오래된 노래이다. <정읍사>가 백제 노래라는 것은 <고려사> 악지(樂志) 삼국속악조(條)에서 백제 노래라고 하고 있다. 물론 <악학궤범>에도 전하지만, 백제 노래라고 밝혀져 있지는 않다. 2,3음절로 되어 있으며, 3음보가 우세하며, 전후 양절로 나눌 수 있다는 특징을 들어서 고려가요로 보는 견해도 상당히 있다. 또한 형식은 3연 6행이며, 조선시대에 궁중음악으로 쓰였다.

2) 원문과 해석

(前 腔) 달하 노피곰 도다샤	달님이시여, 높이높이 돋으시어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멀리멀리 비취 주소서
어기야 어강도리	어기야 어강도리
(小 葉) 아으 다롱디리	아으 다롱디리
(後腔全) 저재 너러신고요	장터에 가 계십니까.
어기야 즈 대랄 드대올세라	진 데를 밟을까 두렵습니다
어기야 어강도리	어기야 어강도리
(過 編)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느 곳에나 놓으십시오
(金善調) 어기야 내 가는 대 점그랄세라	우리 임 가시는데 저물까 두렵습니다
어기야 어강도리	어기야 어강도리
(小 葉) 아으 다롱디리	아으 다롱디리

3) 배경설화

다음 내용은 {고려사} 지(志)25, '삼국 속악 백제조'와 {동국여지승람} 권 34 '정읍현 고적조'에 기록된 내용이다.

정읍(井邑)은 전주(全州)의 속현(屬縣)이다. 이 고을 사람이 행상을 떠나 오래도록 돌아 오지 않으므로, 그의 아내가 산 위에 올라 남편 간 곳을 바라보며 남편이 밤에 해를 입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진흙에 빠짐에 의탁하여 노래를 불렀다. 세상에 전하기를 등점산(登岾山)에 망부석(望夫石)이 있다고 한다.

위의 내용을 보면 정읍사는 망부석 설화를 기초를 두고 지은 것으로 볼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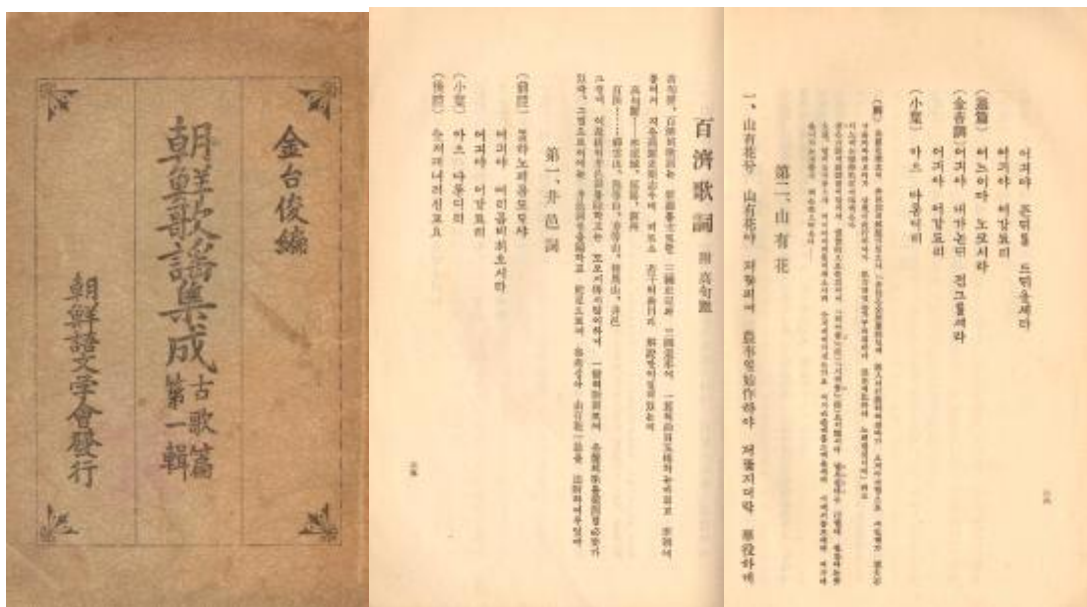
4) 분석

첫째 줄부터 넷째 줄에서는 달님에의 청원을 담고 있으며, 다섯째 줄부터 일곱째 줄에는 남편에 대한 염려가 담겨져 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는 남편의 무사함 기원하고 있다. 그리고 '정읍사'에서는 달이라는 존재가 부각이 된다. 근원설화를 기초로 추측하건데 달은 아내의 상징물로, 장터는 남편이 일하는 곳 혹은 남편이 방황하는 곳으로

추측해 보았다.

5) 결론

정읍사는 백제의 유일한 가요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백제가요이지만, 언제든 지 고려가요로 뒤집어져서 배우게 될지도 모르는 가요이다. 만일 정읍사가 고려가요로 뒤집어진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한글로 표기되어 전하는 가장 오래된 노래이다.



<정읍사 자료사진>

5. 정읍사의 문학사적 의의

20091120 왕효진

1) 정읍사의 배경설화

정읍사는 망부석 설화와 연관이 있다. 남편을 기다리다 돌이 된 부인의 설화는 많이 전해진다. 정읍에서 전주현으로 남편이 행상을 나가서 오래도록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그 아내가 산에 올라가 바라보며, 혹시나 그의 남편이 밤길에 범해를 당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한편, 여자를 만나 몸을 뒹구는 게 아닌가 하여 노래를 불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전하는데, 이를 망부석 설화라고 일컫는다.

2) 정읍사의 의의

정읍사는 행상인의 아내가 남편의 무사 귀가를 바라며 읍은 백제 지방의 고전시가이며, 국문으로 표기된 가장 오래된 노래이고 또한 시조 형식의 원형을 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이다.

3) 정읍사의 내용

행상인의 아내가 남편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기원하는 노래로 지고지순한 사랑과 함께 정읍사의 연대인 백제인의 평민적인 삶의 생활 속에서 빚어진 서정 세계가 잘 나타나 있다.

4) 정읍사에서 달 의미

달은 밤하늘을 밝게 비춘다는 점에서 아내의 애정이 담겨 있는 함축성이 포함된 상징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남편의 귀가 길과 아내의 마중 길을 밝혀주는 수호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달은 그들의 인생향로의 어둠을 밝혀주는 광명의 상징이다. 마지막으로 시적 화자와 남편을 이어주는 매체이기도 하다.



<망부석 여인상 사진>

5) 결론

이 노래는 멀리 행상 나간 남편의 안전을 기원하는 아내의 간절한 마음을 노래한 작품으로 고려사 악지에 의하면 행상 나간 남편이 밤에 돌아오는데 해를 입을까 두려워 하는(야행침해) 아내가 자신의 염려하는 마음을 '달'에게 빌어 남편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고 있는 작품으로 여기서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라는 후렴구를 빼고 작품을 읽으면 오늘날 시조와 어느 정도 유사한 맥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시조의 원형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여기서 특히 '달'은 남편의 무사 안전을 도와주는 '절대자'의 의미가 담겨 있어 우리의 민속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즌데'라는 말은 밤길 귀가 길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이나 또는 남편이 가서는 안 될 곳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본다. 그래서 여기서 '즌데'는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상징한다.

1. 최명희(崔明姬, 1947~1998)의 생애

20091121 유미나



1947년 음력 10월 10일 전북 전주시 풍남동에서 출생한 그녀는 1960년 전주 풍남초교를 졸업하고, 전주 사범학교 병설중학교에 입학하였다.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던 1961년 콩트 「완산 동물원」이 [당선작품]이란 부제를 달고 교지 『학』에 실렸다. 1963년 전주기전여고에 입학한 그녀는 청소년 문사들이 모이는 전국 단위의 굵직한 백일장과 문학콩쿠르에서 장원을 도맡았다. 특히 1965년 9월에 수상한 수필 「우체부」는 작품성을 높이 인정받아 1968년부터 1981년까지 고등학교 작문교과서에 실렸다.

전북대 국문학과로 편입한 그녀는 그 해 12월 25일 전북대학신문에 일기 [내 나이, 나의 키 1]을 발표하였으며, 단편소설 「정옥이」가 전북대 제16회 학예상, 단편소설 「탈공」이 숙대신보사의 제2회 대학 문학상에, 수필 「넋물」이 제1회 전국대학문화예술축전 우수작품으로 뽑혔고, 1971년 1월에는 전북대학신문에 일기 「내 나이, 나의 키 2」를, 10월엔 단편 「탈공」으로 숙대신보사에서 주는 제2회 대학 문학상을 소설 부문에서 받았다. 그리고 10월, 전북대에서 주는 제16회 교대 학예상 소설 부문에 단편 「정옥이」가 뽑혔다.

1980년 1월, 최명희는 국어교사로 재직함과 동시에 중앙일보 신춘문에 소설 부문에 단편 「쓰러지는 빛」으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5월에는 단편 「정옥이」를 한국문학에 발표하였다. 1981년에 그녀는 친구인 극작가 이금림의 권유로 집필을 위하여 보성여고 교사를 그만두었으며, 같은 해에 동아일보 창간 60주년 기념 2천만원 고료 장편소설 공모에 『혼불』(제1부)이 당선되었다. 1983년 단편 「이웃집 여자」가 서울신문사에서 나온 『일곱 무지개 빛깔 같은』에 실렸고, 1983년부터 9월부터 1986년 4월까지 장편 「제망매가」를 전통문화에 신다가 『혼불』에 전념하기 위해 중단하였다. 그리고 1988년 9월부터 월간 (신동아)에 『혼불』 제2부 연재를 시작하였으며, 1985년까지 그녀는 만 7년 2개월간 제5부까지 집필, 국내 월간지 사상 최장기 연재기록을 세웠다. 1990년 12월, 최명희는 『혼불』 제1~2부 출간했고, 1991년엔 단편 「메별」과 「쓰러지는 빛」이 '우리 시대의 한국문학' 25권에 실렸다. 1993년 10월에 그녀는, 1988년 9월부터 시작한 소설 「혼불」의 『신동아』 연재를 마쳤다. 장장 7년 2개월 동안 이어진 연재 기록은 당시 월간지 소설 연재 사상 최장기기록으로 남아 있으며, 육필로 쓴 원고는 원고지 12,000장에 달한다. 1996년에 대하예술소설 『혼불』이 전5부 10권 출간되었다. 책이 출간되자 일부 언론에서는 '완간'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당시는 작가는 “이 작품은 아직 완간이 아니다. 작품의 시대 배경은 해방공간 이후 6.25, 4.19, 5.16등 가까운 현대사까지 이어져 한국사의 격동기를 그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혼불』이 계속 씌어졌다면 그것은 하나의 방대한 대하가 됐을 것이다. 1997년 7월, 한길사 제정 제11회 단재상 문학부문 수상하였으며, 10월엔 제16회 세종문화상 수상하였다. 1998년 1월에 제15회 여성동아대상 수상, 6월엔 호암상 예술부문 수상하였다. 그리고 12월, 최명희는 ‘아름다운 세상, 잘 살고 간다.’는 유언을 남기고 향년 51세의 나이로 영면에 들었다.

2. 최명희의 소설세계

20091123 윤다현

최명희는 『혼불』을 집필하면서부터는 다른 작품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장편소설은 단편소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다른 이유는 『혼불』에 나타난 표현기법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들이 단편에서 장편으로 확장,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혹자는 최명희의 단편은 『혼불』을 창작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최명희의 전체적인 소설세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단편소설의 특성을 확인하고 그러한 특성들이 『혼불』에서 어떻게 심화되고 확장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1. 서술방식

최명희의 모든 단편은 1인칭 화자의 양상을 띠고 있으면서도 전지적 시점에서의 일탈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작가의 관심이 자아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타인과의 단절감을 인식하고 극복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1인칭 시점을 기본으로 선택함으로써 개별 자아의 내면을 정직하게 드러낼 뿐 아니라 전지적 시점에서의 일탈을 통해 타자화된 상대의 의식을 드러내어 소통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편소설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이중 텍스트의 삽입이다. 「정옥이」와 「이웃집 여자」에는 성경의 특정 내용이, 「만종」과 「매별」에는 특정 어휘에 대한 사전의 정의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시된다. 이와 같은 텍스트상호성은 다른 텍스트에 비추어 텍스트를 해독하는 행위를 유도한다. 즉 독자의 해석이 텍스트의 한계에서 탈출해서 현실로 나아가는, 다시 말해 텍스트의 의미를 현실적 영역으로 확장하여 의미를 재창출하게 한다.

이와 같은 단편 소설의 서술 방식은 『혼불』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혼불』은 아주 다양한 방식의 서술방법을 혼합 적용하고 있는 소설이다. 의식의 흐름 기법을 원용해서 서술자와 인물의 의식 상태를 자유롭게 전개시키는가 하면, 여기에 오버랩이나 플래시백·클로즈업 등의 카메라 기법을 사용하여 현재와 과거를 넘나든다. 또 서술자와 인물의 시점을 중첩시킴으로써 그 둘 사이의 동화 상태를 드러내기도 한다. 서술자는 객관적인 자세를 지니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인물에 투영시킴으로써 목소리의 단일화를 피하고, 그럼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자유로이 오가며 주제를 부각시킨다. 그리고 전통자료들을 면밀히 고찰하여 소설 속에 삽입하고, 그것을 재해석하고 있다.

2. 주제의식

최명희 단편소설의 주요 등장인물은 여성이다. 즉 여성 주인공 또는 여성 화자가 등장하여 서사를 이끌어간다. 그러므로 최명희 단편소설은 여성의 정체성을 탐구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성 인물이나 여성 화자가 서사의 중심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여성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명희의 인물들은 남성성을 전제로 했을 때 변별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으로서의 여성성을 나타낸다.

『혼불』에서는 단편의 여성적 정체성이 민족적 정체성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나타난다. 단편소설이 여성의 정체성 회복을 꾀하는 것이라면, 『혼불』은 민족적 정체성의 회복을 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의 의식과 정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교적·가부장적 세계관의 장점과 단점을 아울러 고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인의 발전적인 미래를 형성하는 데 커다란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완의 작품이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3. 소설 <혼불>의 이해 - 줄거리 및 이해와 감상 -

20091146 홍예스더

20071141 한 소 영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인 1930-40년대 전라북도 남원의 한 유서 깊은 가문 '매안 이씨' 문중에서 무너져 가는 종가를 지키는 종부 3대와, 이씨 가문 땅에 살아가는 상민 마을 '거명굴' 사람들의 삶을 그린 소설이다. 등장인물 개개인이 겪는 심적, 육체적 갈등을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과거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통을 보여준다.

만 17년간에 걸쳐 완성된 대하소설인 이 작품은 근대사의 혼동 속에서도 전통적 삶의 방식을 지켜 나간 양반 사회의 기품과 평민과 천민의 고난과 애환이 생생하게 묘사되었으며, 소설의 배경을 만주로 넓혀 그곳에서의 조선 사람들의 비극적 삶과 일제에 의해 강탈당한 민족정신의 회복을 염원하는 모습 등을 담았다.

또한 호남 지방의 혼례와 상례 의식, 정월 대보름 등의 전래 풍속을 세세하게 그리고, 남원 지역의 방언을 구사하여 민속학·국어학·역사학·판소리 분야 학자들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일제의 가혹한 수탈과 악랄한 지배가 더욱 극성을 부리던 일제 말기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억압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꺼진 혼불을 환하게 지펴 올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가꾸어 온 세시 풍속, 관혼상제, 음식, 노래 등 민속학·인류학적 기록들을 아름다운 모국어로 복원해 내면서 대하 서사시적인 규모로 사건이 아닌 이야기 중심의 소설로 이끌어간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혼불에서는 여러 계층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 그들 내면의 다채로운 형태를 세밀하게 그려낸다. 종갓집 며느리로서 대범하고 강단 있는 효원이, 조선의 대장부 여성상이라고 표현 될 청암부인, 혹은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충직한 안서방, 신분 상승을 꿈꾸며 세상이 뒤집어지기만을 바라는 상갓 춘복이와 그를 꼬드기는 옹구네, 그 모두가 과거 우리 생활의 기록들이다. 덕석말이를 시키는 원땀의 양반네나 그걸 당해야 하는 거명굴의 상갓에서나 그것은 싫다 좋다 할 수 없는 조선사람의 운명이고 풍속이고 삶이었다.

이미 거기엔 선악의 개념이 없다. 여기서 작가는 누가 옳고 그른가에 대한 정답을 묻고 있지는 않는 듯하다. 스스로 자신의 혼불을 지피고 태우며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누구하나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사람은 고요한 인간이라고 소중하게 풀어내고 있다. 다만 그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조심스럽지만 강하게 알려주고 있다.

이처럼 혼불은, 민중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김으로써 전통의식의 삶을 언어의 구체적 묘사와 우리 겨레의 숨결을 그려 '우리가 인간의 본원적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는 작가의 말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작품이다.

4. <혼불>의 배경

20031111 김웅기

"혼불"에서 우러나는 아름다움과 애련함, 근엄함과 서러움, 밝음과 어둠이 은행나무, 살구 나무를 스친 땃바람 소리가 대실을 건너 노봉마을과 사매면을 싸고돈다. 가장 꽃다움을 보여주는 꽃심을 지닌 땅 노봉 마을의 이곳저곳에서, 또 울분의 꿈틀거림이 녹아 있는 거명굴의 이 골목 저 골목에서 "혼불"의 소살거림을 느낄 수 있다. 꾸불꾸불한 길을 "혼불"과 함께 한 식경 정도 건노라면 최명희님의 내밀한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한 것이다.

즉 소설 "혼불"이 한국의 정서문화를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라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남원은 바로 그 주무대이다.

(1) 종가

종가는 「혼불」의 중심무대이며 청암부인, 율촌택, 효원과 강모가 거주하던 곳으로 노봉마을의 원땀에 위치하고 있다.

종가는 청암부인의 기상이 서려있는 곳이고, 종부(宗婦)는 그저 한 사람의 아낙이 아니고 흘러내려오는 땃줄과 흘러가야 할 땃줄의 중허리를 받치고 있는 사람이다. 노적봉의 엄연한 기상이 뻗어 내리면서 또아리를 틔운 곳에, 높다랗게 솟아 오른 검은 지붕이 마음을 응시하듯 내려보고 있다. 솟을대문 옆에는 하늘로 치솟을 듯 우람한 등치의 은행나무가 서 있고, 중마당 안에는 늙은 줄기가 반이나 거뿔게 웅크리고 있는 매화 고목이 있다.

(2) 노봉서원 터

나라에서 임금이 몸소 이름을 지어 현관을 하사하시고, 그에 따른 책, 노비, 토지를 함께 받은 '사액서원(賜額書院)'이 있는 마을이어서, 매안에는 타성들이 여러 가호 살고 있었다.

현유(賢儒)의 위패를 모시고 유림들의 학문을 장려했던 서원들이 거의 모두 강제로 철거될 무렵, 고종 8년 삼월 열여드렛날, 이 '매안서원(梅岸書院)'도 무참히 헐리었는데, 그 휘철령 이후에도 서원에 딸린 사람들은 그냥 매안에 눌러 남아 근근이 살았다.¹⁾

1728년 인조 17년에 건립된 노봉서원은 대원군의 서원철폐에 따라 없어지고, 현재는 빈터에 주춧돌만 남아있다. 본래 이 지역은 노봉서원이 있어 서원리라 하였으나, 지금은 인근의 도촌리와 병합하여 서도리가 되었다. 노봉서원은 임금의 이름을 지어 현관을 하사하고, 그에 따른 책, 노비, 토지를 함께 받은 사액서원이다. 이렇듯 유서 깊은 서원의 학풍이 이어져와 훗날 「혼불」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3) 청호 저수지

“전에, 옛적에 한 고명하신 어른이 주유천하(周遊天下)를 하셨더라. 그 어른이 하루는 이 고을 매

1) . 『혼불』 (한길사, 1996) 3권 pp. 150-151.

안에 머무시면서 시방산세(十方山勢)를 두루 짚어 살피신 연후에, 과시 낙토로서 경우진 것이로다. 하고 감탄을 하셨는데…….”

청암부인은 중간에 잠시 말을 멈추고 이기채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다만 서북으로 비껴 기맥이 새어 흐를 염려가 놓였으니, 마을 서북 쪽으로 흘러내리는 노적봉과 벼슬봉의 산자락 기운을 느긋하게 잡아 묶어서, 큰 못을 파고, 그 기맥을 가두어 찰랑찰랑 넘치게 방비책만 잘 강구한다면, 가히 백대 천손의 천추락만세향(千秋樂萬歲享)을 누릴 만한 곳이다. 하고 이르셨더란다.”²⁾

청호저수지는 비산비야 사질토로 물이 부족하여 농사짓기가 어려워 만든 저수지이다.

마을 서북쪽으로 뻗어내린 노적봉과 벼슬봉의 산자락 기맥을 가두기 위해 큰 못을 파고, 그 갇힌 기운이 찰랑찰랑 넘치게 한다면, 백대천손의 천추락만세향(千秋樂萬歲享)을 누릴 만한 곳이다 하여 청암부인은 실농한 셈 치고 2년여에 걸쳐 만들었다.

저수지를 파다가 동서로 열다섯 자 네 치, 남북으로 열넉 자 두 치에 이르는, 보면 불수록 얹어놓은 조갑지 형상인 실로 거창한 조개바위가 나왔다. 사람들은 이 바위가 이씨 문중과 종가는 물론이거니와 온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될 것으로 굳게 믿었다.

(4) 서도역

서도역은 「혼불」의 중요한 문학적 공간이며 혼불 문학의 출입문이다. 매안마을 끝 아랫물에 이르러, 치마폭을 펼쳐 놓은 것 같은 논을 가르며 구불구불 난 길을 따라, 점잖은 밥 한 상 천천히 다 먹을 만한 시간이면 닿는 정거장, 서도역은 효원이 대실에서 매안으로 여행을 때 기차에서 내리던 곳이며 강모가 전주로 학교 다니면서 이용하던 장소이기도 하다. 서도역은 2002년 전라선 철도 이설로 신역사를 준공, 이전하였으며, 헐릴 위기에 처했던 것을 혼불정신선양회 및 사매면민들의 건의로 1930년대 당시의 모습을 복원하여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2) . 『혼불』 (한길사, 1996) 1권 p. 158.

1. 김시습의 생애

20091124 윤호진

근대 이전의 우리 지성인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사람 중 하나를 꼽으라면 김시습을 꼽을 것이다. 김시습은 인간존재와 사상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였으며 사상과 종교의 본모습을 회복시키려고 했던 '위험한 사상가'이자 최초의 한문소설로 일컬어지는 『금오신화』를 남긴 조선 최고의 문장가였다. 그러나 그는 정착하지 못한 채 여러 곳을 방랑하며 고독한 삶을 살았으며 그만의 독특한 정신세계를 구축하였다.

김시습의 문학은, 방외인의 문학이었다. 방외인이란, 세상 바깥의 인물을 뜻하는 것으로, 지배 체제 안에서 주어진 위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을 보이며, 이념적으로도 이단을 택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들은 지체에 결함이 있는 말단 사대부 또는 그 이하의 위치여서 진출을 바랄 수 없는데다가, 자기 재능에 대한 자부심이 반발을 촉진해서 방랑과 비판으로 일생을 보내기 일쑤였다. 방외인 문학은 이러한 방외인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문학으로 방외인의 선구자는 매월당 김시습이다. 그는 가슴에 쌓인 울분을 시에 쏟아놓았으며, 한국 최초의 한문소설인 『금오신화』를 지었다. 이 작품은 전기적 양식을 모체로 그의 방외인적 삶의 자세와 현실주의적 세계관이 잘 표현된 작품이다.

그는 무엇이라고 명명하기 어려운 미지의 진실을 찾아나서 사상의 방랑을 거듭했고, 시를 짓는 데서 큰 보람을 찾았는데 그의 방랑하는 신세의 한탄이나 농민의 처지를 대변하는 내용의 한시를 지었다. 또한 방외인은 한탄스럽기만 한 세상을 초탈하고자 선도를 닦아 현실을 도피하였다. 이는 하층민이 겪는 고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처지를 나타낸 시를 지었다. 김시습의 시세계는 주로 봉건적 모순과 그에 따른 수탈에 신음하는 민중의 고통을 대변하는 내용에 주목하곤 했다. 특히 그는 평양 여행에서 두 가지 중대한 시야를 갖추게 된다. 하나는 신화 세계 및 민속에 대한 관심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어부나 상인의 아내와 같은 기층민의 애환에 대한 동정이다. 별포에서 고달프지만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어부의 모습을 보았고, 대동강 가에서는 상인 아내의 낚두리를 들었는데 달콤한 말에 넘어가 상인의 아내가 된 여인은 그리움이 칭칭 얹혀 가슴을 쥐어뜯지만, 상인의 마음은 길 위의 쭉대 같아 머물 곳을 모르고 휘휘 날아갈 따름이다. 김시습은 상인의 아내가 겪는 생이별의 고통, 더 나아가 인간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별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였다. 또한 강원도 정선을 거쳐 삼척에 머물 때에 김시습은 한가하게 풍광을 둘러 본 것만이 아니라 농민들의 피폐한 삶을 목격하고 눈물지었다. 칠언시 「산가의 고충을 노래한다.」 여덟 수에는 기층민의 삶을 동정하는 그의 절절한 감정이 잘 나타나 있다. 김시습은 자신은 일하지 않고 편안히 지내면서 입으로만 애민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김시습은 스스로 땀 흘려 일하는 괴로움을 겪으면서 농민을 대변하는 시를 썼다.

김시습은 그의 생애 자체는 고독했지만 그가 가진 사상이나 마음가짐은 맑고 곧았다. 그리고 그가 방랑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것은 그가 오늘날 후대에 훌륭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이유이다. 조선시대 한 문장가의 삶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

2. 김시습의 작품세계

20091125 이근용

김시습(1435-1493)에게 있어서 ‘기’철학은 사회사상으로 전개되었던 바, 핵심개념은 생생(生生)³⁾으로 일반 백성들의 안정된 삶을 위한 애민·인정의 정치학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그의 정치적 이상과 정치현실 사이에 거리가 없을 수 없었다. 때문에 세상과 나 사이의 모순, 시대와의 불화는 피할 수 없는 노릇이어서 그는 이탈, 고독과 고뇌를 감내하며 굳건한 자세로 자아를 고수했고 이와 같은 자세는 그의 작품에서도 느낄 수 있다.

그의 시 세계는 자연과 인간 만사로부터 천재의 자유분방한 상상력에 이르기까지 담아내지 않은 것이 없다할 정도로 방대하고 풍부하다. 하지만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들 수 있는데 하나는 국토산하의 아름다움을 빼어나게 표출한 면모이고 다른 하나로는 백성의 먹고사는 어려움과 사회현실의 모순을 심각하게 고발하고 날카롭게 그려낸 면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금오신화’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금오신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로서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을 등장인물로 하여 한국인의 풍속사상·감정을 표현하였다. 또한 소재와 주제가 특이한 관계로 결합되어 훌륭한 문학적 가치를 발휘하고 있으며 소재가 귀신·염왕·용왕 같은 비현실적인 것인데, 이러한 소재가 작품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오히려 주제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는 구실을 한다. 김시습은 인간 속성을 논설을 통해 일체 부정했을 뿐 아니라 작품 구조 속에서도 그런 것이 실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는 작품에서 귀신을 통해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별세계를 통해 별세계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비현실적 소재를 교묘하게 이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를 더욱 생생하게 표현하고 거기에 내포된 주인공과 세계의 대결을 더욱 날카롭게 부각시켜 문제의식을 부여하였다. 결말 처리 방식 또한 특이하다. 주인공들은 끝에 가서 하나 같이 세상을 등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대부분이 고전소설에 종결부가 행복한 결말로 종결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세상을 등지는 것은 운명에 대한 순종이나 패배가 아니라 그릇된 세계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비장한 결단의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현 형식에 있어서 유려한 문어체 문장이나 시에 의해 애상이 서정적으로 미화되고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구성 또한 정교함을 지니고 있다. 시가 다량 삽입되어 인물의 심리와 분위기를 표현에 독특한 효과를 낳고 있다. 시의 다량삽입은 서정시가 국문학을 주도하던 조선전기의 문학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주인공이 대체로 작자 자신을 본보기로 하여 이루어진 인물이기에, 이야기 또한 자서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많은 사건이 특정한 역사적 사실, 즉 수양대군(세조)에 의해 단종이 폐위된 사실이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세조의 부도덕성을 고발하는 한편, 단종과 세종에 대한 자신의 충절을 표출시키는 수단이 되었다.

3) 생물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남획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인간 문제로 와서는 '민생'의 개념으로 연계된다. 유교적 민본의 이념에 입각한 이론으로 민주주의 사상의 싹을 엿볼 수 있다.

3. <만복사저포기>의 이해

20031168 채진두

<줄거리>

남원에 사는 노총각 양생은 어느 날 만복사의 불당을 찾아가서 부처님께 저포놀이(웃놀이의 일종)를 청했다. 그가 지면 부처님에게 불공을 드릴 것이요, 부처님이 지면 그에게 아름다운 배필을 증매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기였다.

서생은 저포를 던져 이기게 되어, 불좌 밑에 숨어서 배필이 될 여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 때 문득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타나 부처님 앞에 자신의 외로운 신세를 하소연하면서 좋은 배필을 접지해 달라고 기원하였다.

이를 본 서생이 그 여인 앞으로 뛰어나가 회포를 말하니 두 사람은 정이 통해 하룻밤을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실은 이 여인은 인간이 아니라 왜구가 침범한 난리 통에 죽은 처녀의 환신이었다.

이튿날 여인은 서생에게 자기가 사는 동네로 가기를 권했고, 서생은 거기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사흘 뒤 그가 돌아가게 되었을 때 여인이 서생에게 신표로서 은주발 한 개를 선사하였는데 그것은 그 여인의 무덤에 매장한 부장품이었다.

다음 날 그들은 보련사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재가 끝난 뒤 여인은 인연이 끝나 마침내 혼자서 저승으로 떠나 버렸다. 서생은 끝내 그 여인을 잊지 못하여 장가도 들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서 약초를 캐면서 평생을 마쳤다.

이 작품은 '금오신화(金鰲新話)'에 실려 전하는 다섯편 중의 하나로 일종의 전기소설(傳奇小說)로, 전래하는 인귀교환설화(人鬼交驢說話), 시애설화(屍愛說話), 명혼설화(冥婚說話)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이승의 사람과 저승의 영혼의 결합이라는 전기성(傳奇性)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전래 설화, 패관 문학, 가전(假傳) 등의 내적 요인에다 중국 진당(晉唐) 전기체(傳奇體) 소설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구우(瞿佑)의 '전등신화(剪燈新話)'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의 소설적 특징은 <금오신화>에 실려 있었던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재자가인(才子佳人)이고 한문 문어체로서 사물을 극히 미화시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품 안에 보이는 운문은 상황에 따른 정감을 집약시켜 주인공의 심리를 묘사하는 구실을 하고 있지만, 당대의 여건으로 본다면 모든 문장이 운문에서 완전히 탈피하기 어려웠다. 불교의 연(緣) 사상이 바탕이 된다.

이 작품은 '양계(陽界)와 음계(陰界)의 인물의 만남, 이별, 양계의 인물이 속세를 버림'이라는 줄거리로 되어 있다. 주인공 양생은 비록 현실이 아닌 음계의 인물과 만나 사랑을 나누었지만 그것을 한갓 장난이나 일시적인 것으로 알지 않고 진실한 것으로 생각했다. 음계의 여인이 사흘 동안의 재가 끝난 후 공중에 나타나, 자신이 양생의 은덕으로 타국의 남자로 태어났음을 말하고, 양생에게 정업을 닦아 속세의 누를 벗어날 것을 부탁하지만, 양생이 장가도 들지 않고 속세를 떠났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 이 작품은 설화적 소재에 자신의 창의성을 가하고 상당 수준의 소설적 형식을 갖추으로써 소설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니고 있다.

4. 관련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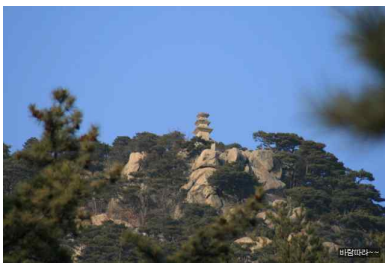
20081144 한혜림



-만 복 사-

전북 남원에 김시습의 소설 『만복사저포기』의 배경이 되었던 만복사가 있다. 비록 만복사는 온전한 그대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지만 만복사의 터만으로 짐작하여 남원에서는 가장 큰 절이었다고 한다. 누구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담아 만복사(萬福寺)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만복사는 고려 초기에 창건되었으며 정유재란 때인 선조 30년 왜구에 불타버린 이래 숙종 4년(1678) 남원 부사였던 정동설(政東謫)이 중창하려 했지만 규모가 너무 커서 예전처럼 복원하지 못하고 승방 1동을 지어서 그 명맥을 유지했으나 이후 300여 년 동안 돌보는 이가 없어 폐사로 있다가 1979년부터 7년간 전북대 박물관팀에 의해

발굴되었다.



-용 장 사-

용장사는 경상북도 경주시 금오산(金鰲山)에 있었던 절이다. 김시습은 이 곳에서 매월당이라는 초당을 짓고 최초의 한글소설인 금오신화를 집필하였다.

용장사 터에는 현재 보물 제 186호인 용장사 삼층석탑, 보물 제 187호 삼륜대좌불(三輪臺座佛) 그리고 보물 제 913호인 마애석가여래좌상(磨崖釋迦如來坐像)이 남아 있다.



-김 시 습 영 정-

현재 충청남도유형문화재 제64호로 지정되었다. 매월당 김시습의 초상화는 현재 충남 부여군 무량사(無量寺)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초상화는 복부까지 그려진 반신상이다. 조선 전기의 초상화는 현재 몇 점 밖에 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도 원본을 본 때 그린 것이거나 덧칠을 한 것이 많은데 이 초상화는 원본 그대로 남아있어 귀중한 작품이다. 그의 저서인 『매월당집』에 의하면, 김시습은 생전에 두 점의 자화상을 그렸다고 하는데, 이 그림이 그 자화상인지의 여부는 알 수가 없다.



-부 도-

김시습의 부도는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外山面) 만수리 소재 무량사에 있다. 충남유형문화재 제 25호로 지정되었다. 하대석에는 8개의 복련이 눈에 띄고, 중대석에는 용 두 마리가 서로 구름 속에서 여의주를 회룡하고 있다. 그리고 앞의 양련(仰蓮)이 새겨진 상대석(上臺石)을 갖추고 있다. 또한 그 위에는 아무런 문양도 장식도 되어 있지 않은 8각 탑신(塔身)이 올려져 있다. 일제 강점기에 나무가 태풍에 쓰러지면서 부도도 함께 쓰러졌다. 그때 그 안에서 사리가 나왔는데 그 사리는 현재 국립부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1. <춘향가>와 <춘향전>

20081146 홍초록



《춘향가》는 판소리 6마당 중의 하나이다. 사설의 서사적 구조나 서술이 가장 예술성이 높고, 청중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 온 마당이다. 사설과 창 의 길어도 긴 것은 8시간이나 된다. 어사 출두 대목은 '춘향가' 전체의 절정에 해당된다. 흥겨운 변 사또의 생일 잔치는 아수라장이 되고, 잔치에 참여한 아전 등 관속들의 허둥거리는 모습은 억눌리며 살아온 청중들에게 심리적인 해방감을 준다. 《춘향가》의 제작 연대는 1867년(고종 4)에서 1873년 사이로 추

정된다. 남창(男唱)·여창(女唱)·동창(童唱)의 3가지가 있으며, 그 중에서 《동창춘향가》가 널리 불린다. 남창은 웅건하고 간결하며, 여창은 실전(失傳)되어 현재 전하는 것이 없다. 동창은 동심(童心)의 문학으로 애정의 갈등을 잘 그렸으나, 춘향과 이도령이 오리정(五里亭)에서 이별하는 대목에서 끝나므로 사실상 미완성작품이라 하겠다.

《춘향전》은 《심청전》, 《홍부전》 등과 함께 판소리계 소설이다. 이러한 판소리는 전부가 어떠한 근원설화를 가지고 있다. 그 근원설화를 찾아보면 열녀설화, 암행어사 설화, 신원설화, 염정설화 등이 있다. 춘향전은 그러한 설화를 종합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를 보면, 남원에 춘향이라는 기생이 이도령을 사모하다 죽었다는 신원설화, 박문수 등의 암행어사 설화 등이 종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벽오 이시경의 실제담이라는 설, 남원 사람 육계 노정의 실제담, 또는 전북지방에 떠돌던 이야기라는 등 여러 추측이 많으나 하나도 확실치는 않다.

《춘향전》의 줄거리는 전라도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이 방자와 광한루에 놀러 나왔을 때, 퇴기 월매의 딸 춘향은 향단을 데리고 그네를 뛰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본 이 도령은 춘향의 자태에 반해 백년 가약을 맺는다. 이 부사가 서울로 영전하게 되어 몽룡과 춘향은 이별한다. 신임 부사 변학도는 춘향에게 수청을 명하고, 춘향은 죽을 각오로 거절하여 옥에 갇힌다. 서울로 올라간 몽룡은 장원 급제하여 호남 지방에 암행어사로 내려와, 부사의 생일날 어사 출도를 단행하여 부사를 파직하고 춘향을 구해 행복하게 된다. 이러한 줄거리는 여러 종의 《춘향전》 사본에서는 대개 같으나 그 세목이 사뭇 달라지는데 이것은 《춘향전》이 판소리로, 판소리라는 구비문학(口碑文學)의 전통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100여 종이 넘는 이본(異本)이 증명하듯이, 널리 읽혀온 것이 소설 《춘향전》이며, 판소리 청중들을 끊임없이 사로잡은 것이 판소리 《춘향가》이다. 춘향의 신분 상승 의지 또는 굳은 절개와 탐관오리에 대한 저항 정신은 조선 후기 민중 의식의 성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 도령이 사또를 응징하는 부분으로, 민중의 꿈과 소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 의식과 함께 춘향의 절개는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로서 우리 민중의 전형으로 받아들여진다.

2. 춘향전의 모델과 작가 탐색

20061108 김은경

1. 춘향전의 모델

1) 이어사 모델

① 암행어사 성이성

춘향전의 남정 주역은 작품의 전반부에서는 이도령으로, 후반부에서는 이어사로 활동하는 인물이다. 춘향전의 책방도령에서 어사까지의 활동에 대한 인물 소재로 성안의 부사의 자제 성이성을 들 수 있다. 그는 부친 성안의가 남원부사로 재직할 때, 남원에 와 있었다. 특히, 그의 부친 성안의 남원부사는 재임동안에 덕치를 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성안의 부사의 자제 성이성은 부친이 남원부사로 재임했던 1607년부터 1611년까지 4년간 부친을 따라 남원에서 소년시절을 보냈다. 남원에서는 산서 조경남 으로부터 학제 공부를 하였다. 부친이 광주목사로 이직하게 되어 남원을 떠날 때 그도 그곳을 떠났고, 그 후 1639년에는 암행어사가 되어 1차로 남원에 왔으며, 1647년에는 다시 남원에 호남어사가 되어 내려왔다. 이러한 기록에서 확인되듯이 성이성은 남원부사의 아들로 남원에서 학업을 닦다가 16세에 남원을 떠나갔음이 확인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성안의와 같은 어진 부사의 아들이자 부친을 따라 남원에 내려와서 책방도령으로 산서 조경남 밑에서 과거 공부를 하다가 16세의 도령으로 남원을 떠나고, 후에 다시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에 내려와 옛 스승을 만나는 성이성의 모습은 춘향전 이어사 모델로서의 몫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옥계 노진의 사실을 소설화 한 것

춘향전 근원설화 중 암행어사설화를 소개하면서 그 첫 설화로 노진설화를 들었다. 남원 사람인 옥계 노진은 호서어사를 지낸 사람인데 그에 관한 야담으로 절개를 지킨 기생과 암행어사 이야기가 전한다. 노진에 얽힌 이런 열녀 기생 이야기는 춘향전에서 보여주는 열녀 기생의 이미지와 일부 상통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노진이 활동하던 시기에 비하여 아주 후기의 것으로 거의 2백 년 간 전승되던 이야기가 후에 『계서야담』에 수록되었다.

2) 춘향모델

① 남원성 전투의 열사

정유재란 중인 1597년 8월 15일에서 16일 사이에 벌어진 남원성 전투에서 명나라 군대와 조선의 연합군은 왜군에 크게 패하였다. 이런 남원성 전투의 와중 속에서 명나라 군대와 조선군 및 백성들은 만 명에 가까운 인명의 손실을 가져왔다. 이 날 전투에서는 당시 남원 부사인 임현, 전임 남원부사인 이복남, 구례현감 등도 순직하였다. 이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 날 장렬한 죽음을 스스로 맞아 순국한 전직 현직의 두 남원부사의 행동을 비롯한 순국 장졸들의 정신은 조경남에게는 강렬한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뒷날 조경남이 춘향전을 창작할 때에 이들의 정신을 춘향의 곱힐 줄 모르는 절개로, 강렬한 수절녀로 형상화시키는데 기여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춘향의 정절은 남편을 따라 수절하는 열녀만도, 정조를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열녀만도 아니고, 탐학을 일삼는 수령의 형장에도 굽히지 않는 순국형 충신이나 열사에 준하는 열녀이기 때문이다.

② 남원의 정절녀

춘향전에 대한 초기 연구에는 지리산 도미처 설화를 춘향전의 모델로 들기도 했다. 구비 전승되던 자료나 문헌 기록으로 춘향의 정절녀 모델로 설정될 내용들이 있지만 관기설녀 이야기의 소재가 된 사건은 남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더러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와 유사한 비극적인 사랑의 실제 상황이 있어났을 경우, 그 일부는 그 대상을 이부사의 자제 이도령과 결부시키거나 아니면 춘향전 전체와 결부시킨 이야기들에서 파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또 자제와 기생의 비련의 사랑 때문에 생긴 원통한 사랑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 이를 미화하여 춘향전이 생겼다는 논의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

또, 춘향전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어 온 신원설화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보면 현실로 존재하는 작품 춘향전은 이런 춘향을 위로하려는 신원적 입장에 의해 창작되었다는 하나의 인위적 춘향전 생성설을 만들어 내게 된 것이다. 즉 실존 인물 춘향의 원사를 작가가 허구화시키면서 탐학한 권력자 변부사에게 저항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내용으로 만들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작가가 춘향의 삶을 비운에서 향운으로 전환시켜 위로시키는 것이 주된 의도를 삼고, 관장의 횡포에 대한 징계라는 윤리적 의미도 개입시킨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런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춘향 관련 기록이나 전승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문학적 사실인 춘향전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춘향전의 작가문제

- 조정남 작가설

이어서 모델을 근거로 춘향전 원작가를 산서 조정남으로 추정하였다. 조정남은 춘향전을 창작할 수 있는 적절한 여건을 갖춘 인물이다. 그는 남원에 살았고, 흔히 춘향전 근원설화의 하나로 지목하던 성이성 암행어사의 스승이었으며, 게다가 57년 간 전란 중심의 일기인 『난중잡록』과 『속잡록』, 그리고 200년의 역사를 요약한 『역대요람』을 편찬할 정도로 상당한 문장력을 갖춘 인물이다. 조정남이 원작가라는 근거는 8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산서 조정남은 남원에서 70평생을 살았기에, 춘향전 핵심공간인 남원과 광한루에 얽힌 사건과 상징적 의미에 정통하였다. 둘째, 산서는 임병양란 때의 국내외 역사를 『난중잡록』, 『속잡록』이란 57년간의 잡록체 일기로 남길 정도의 엄청난 정보력을 갖추고 있었다. 셋째, 산서는 이도령 모델인 계서 성이성의 스승이며, 암행어사가 된 그를 광한루에서 만나 함께 보냈고, 이부사의 모델인 부용당 성안의 부사와도 교류하였다. 넷째, 산서는 남원 기생 춘향의 비극적 사건과 그 사건으로 인하여 생긴 신원설화의 내력을 알고 있었다. 다섯째, 산서는 춘향전의 꽃인 ‘금준미주시’를 자신의 일기인 『속잡록』 속에 소개하였고, 그 내용은 『연려실기술』에 인용되었다. 여섯째, 춘향전의 구성이나 주제로 볼 때, ‘금준미주시’는 원작가의 창의력과 강력한 비판의식이 아니고는 표현하기 어렵다. 또 이 시는 춘향전의 역사적 전개에서 변하지 않는 대표적인 구절이다. 일곱째, 산서는 성리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상당한 문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학제에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았고, 진사에 급제했다. 그는 다수의 한시문을 창작하였다. 여덟째, 산서는 순국한 의병장 조현의 수제자이며, 그 자신도 임병양란 때 적과 맞서 싸우며 왜병을 직접 격퇴한 무패의 의병장이었다. 이러한 근거들로 인해 춘향전 원작가로 산서 조정남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춘향전의 주제 - 「춘향전」의 주제를 둘러싼 논란

20061120 송아름

「춘향전」의 주제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가장 전통적인 답변은 ‘열(烈)’이다. 대표적인 이본의 하나로 『열녀 춘향 수절가』라는 책이 있을 정도이니, 이에 대해 다른 말은 필요치 않다. 하지만 ‘열’이라고만 하기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게 하는 많은 다른 요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 작품은 이도령과 춘향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통하여 ‘사랑의 고취’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변사또에 대한 춘향의 저항에서 ‘상층 권력에 대한 하층의 저항’을 읽게 한다. 아울러 결말부에 정경부인이 되는 춘향의 신분상승에서 ‘하층의 신분 상승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춘향전」의 주제로 한편에서 유교 덕목인 ‘열’을 거론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유교에 기반을 둔 당대의 사회 질서나 신분 질서에 대한 저항을 말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춘향전」의 주제 논의는 혼란스럽기 그지없다.⁴⁾

이 혼란은 결국 작품의 주제가 둘이라는 주장을 낳았다. 조동일은 「춘향전」의 주제를 둘로 보고 겹으로 드러난 주제를 ‘표면적 주제’라고 하고 속에 감추어진 주제를 ‘이면적 주제’라고 하였다.⁵⁾ 「춘향전」은 기생 춘향과 기생 아닌 춘향의 갈등으로 이루어진 구조인데, 기생이라는 현실적 조건과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춘향의 갈등을 통하여, 표면적 주제는 ‘열녀의 교훈’이 드러나 있고, 이면적 주제는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나 인간적 해방을 이루자’는 주장이 나타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두 주제는 대립적으로 공존하지만 표면적주제는 낡은 관념이고 이면적 주제는 새로운 사상이므로, 작품의 가치는 후자에 입각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둘 사이의 대립은 시대 자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적 해방을 주장할 정도로 세상이 달라지고 현실 인식 능력도 새로워졌지만, 아직도 낡은 관념에 의한 교훈이 또 한편에서는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작품 내에서의 두 주제의 대립은 포괄적인 의의를 가진다.⁶⁾

4. <춘향전> 연구사

20091127 이지선

<춘향전>은 현존하는 이본의 수에 비례하여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방대한 양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 방대한 양의 연구성과에 따라 다시 연구사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춘향전> 연구의 최초의 논문은 1922년 「조광」에 발표한 마생기차(麻生機次)의 춘향전이란 논문으로 춘향전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춘향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1933년 김태준의 「걸작 춘향전의 출현」에 의해서이며 이후 400여 편이 넘는 연구가 집적되었다. 수많은 연구들의 연구사를 검토하는데 있

4) 외, 『한국 고전소설의 세계』 (돌베개, 2005), pp.130-131.

5) 조동일, 「갈등에서 본 춘향전의 주제」, 『계명논총』 7, 1970

6) 김병국 외,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광학술자료사, 1993), p.30.

어 중요한 기준은 시기구분이다.

① 1930년대부터 1940년대 말까지

이 시기는 우리 고전문학 연구의 기틀을 잡아가는 시기로 <춘향전>에 대한 문학적 접근이 시도되었던 때이다. 신흥 계급의 출현에 따른 시대성 및 신흥 계급의 승리를 대변하는 사상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를 시작으로 이본, 근원설화, <춘향전>과 <춘향가>의 선후문제, <춘향가>의 근대적 변모 등이 주된 연구의 관심사였다. 발생에 대해서는 소설 선행설과 춘향가 선행설이 있다. 또 판소리를 창극조라 칭하기도 하면서 무악 기원설이 제시되기도 했다.

②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전반기까지

이 시기의 대표적인 연구는 판소리의 발생과 이본 연구 등이다. 『춘향전 연구』에서 광대, 근원설화, 이본, 장면 비교, 문체 등을 검토하여 판소리 선행설을 정설화하였다. 그 외에도 이본연구에서는 구자균의 「고대본 춘향전 해제」와 최철의 「춘향전 이본간의 내용비교연구」 있다. 춘향전의 발생과 관련하여 춘향의 실존인물설이 대두되기도 했다.

③ 1960년대 후반기부터 1970년대 말까지

이 시기에는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방법론의 적용이 나타나며 <춘향전>연구의 사적 검토가 이루어져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던 시기였다. 춘향의 신분에 대한 갈등은 신분적 제약을 벗어나려는 인간적 해방의 갈등이라고 보았고 표면적으로 열녀주제를 다루면서 이면적으로는 인간적 해방을 내세운다고 보았고 이러한 주제의 이원화적 파악은 이후 연구들에 영향을 끼쳤다. 주제 면에서는 춘향의 항거가 양반계급에 대한 것이라는 견해를 비판한 견해로 춘향의 사랑은 신분상승과 부귀영화의 추구이며 춘향의 저항은 우호적 양반에게 접근을 방해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한 저항이지 양반계급 자체는 아니라고 보았다.

④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1970년대까지의 연구는 발생론을 비롯하여 춘향전 전승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민족문학’ 및 ‘민중문학’으로서의 가치를 규명하고자 하는 주제론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전체를 조망하던 거시적 관점의 연구는 80년대 이후 미시적인 분석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후의 연구 성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방대하게 진행되었다. 90년대 들어 우리 역사의 근대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옥중화>가 주목받아 텍스트의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주제면에서는 이몽룡과 춘향의 사랑을 봉건적 사회질서에 대한 저항으로 읽고 희극적 대화와 행동을 통해 양반 사회의 위성과 허위를 풍자하는 방자를 통해 중세적 관념을 뛰어넘고 있는 당대 민중들의 현실주의적 성격을 발견했다. 90년대 이후 시대사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 주제 접근방식의 전환이 모색되어 여성주의적 시각이나 수용 미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시도되었다. 지금도 수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진행 중에 있지만 각 이본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에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지의 상태로 남아있다. 이러한 세밀한 작품의 분석은 앞으로 춘향전 연구가 가지는 숙제가 될 것이다.

5. <춘향전>의 배경

20091128 이진희

광한루원 : 광한루원<廣寒樓園>은 근세 전기에 조영된 대표적인 정원으로 꼽히고 있는데 한국의 독특한 조경양식이 탄생하는데 모체가 되고 있으며 정원을 대표할 수 있을 만큼 질적으로 우수하고 통시대적 문학사에 나타난 정원양식을 표현하고 있어 전통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오작교 : 세조8년(1462)에 남원부사 장의국이 광한루를 수리하면서 다리를 놓고 이름을 오작교라 했다. 광한루는 정유재란 때 불타 1638년 복원됐지만 오작교는 만들었을 당시 그대로의 모습이다. 오작교는 길이 33m, 폭2.6m, 높이 4m로 화강암을 뚝뚝하게 쌓아올린 평범한 모양이다. 그러나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이 스며든 곳이기에 평범한 다리와는 그 격을 달리한다.

부부가 오작교를 밟으면 금실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고, 수많은 연인들이 즐겨 찾고 있다.

월매집 : 조선시대 우리나라 고전 <춘향전>의 무대가 된 집이다. 남원부사의 아들 이몽룡이 광한루 구경 길에 올랐을 때 그네를 타고 있던 성춘향에게 반하여 두 사람이 백년가약을 맺은 집으로 춘향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월매집이라고 하였다.

춘향사 : 춘향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든 사당으로 광한루의 동쪽,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 숲 속에 있다. [단심]이라 씌여진 정문을 들어서면 사당 정면에 김태석이 쓴 [열녀 춘향사]란 현액이 걸려 있고 사당 안에는 춘향의 영정이 모셔져 있고 그 맞은편에는 당시 전라북도 지사 김서규가 지은 [춘향사기]가 걸려 있다.

춘향관 : 춘향관은 열녀 춘향의 얼과 정절을 민족혼으로 오래 기리고 선현들의 유업을 높이 받들어 후손에 길이 물려주기 위하여 1989년에 착공하여 1992년 제 62회 춘향제를 기하여 완공됐다. 춘향관은 한식 정자형으로 건축되었는데 춘향의 일대기와 당시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서화류, 장신구류 등이 전시되어 있다

오리정 : 춘향고개 하단도로변에 자리 잡고 있는 오리정은 1953년에 세웠다. 춘향이와 몽룡이가 슬픈 심정으로 이별의 정을 나눈 곳이 이곳이라 하여 정자를 세우게 된 것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오리정은 고을 앞 5리 되는 지점에 세워 중요인사의 왕래에 영접하는 용도로 이용된 공용건물이다. 사적용도의 일반적인 정자와는 성격이 다른 만큼 그 생김새도 특징있게 생겼는데 실제 사용하지 않는 2층을 올려 누각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오리정은 그 성격은 정자이지만 형태를 누각처럼 세움으로써 공공용도임을 드러낸 것이다.



<부사 성안의 선정비>

1. <관음사 연기 설화>에 대하여

20051114 박경남

심청전은 설화소설이기에 일찍부터 근원설화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최초로 거론한 사람은 만해 한용운 선생으로 잡지 <불교>(1930)에서 <천출대효(天出大孝) 『심청(沈淸)』 소저(小姐)는 『원(元)봉사』의 딸 『홍장(洪莊)』이다>로 곡성 관음사 연기 설화를 소개하였다. 심청전에 대한 연구는 김태준(金台俊)이 시작하는데 그는 1933년에 출간한 「조선소설사」에서 심청의 근원설화로 인도의 <전동자 專童子>·<묘법동자 妙法童子> 전설, 일본의 <소야희 小夜姬>와 한국의 <효녀지은설화 孝女知恩說話>·<관음사연기설화 觀音寺緣起說話> 등을 들었다. 그 후에도 많은 학자들이 심청전의 근원설화를 연구해 왔으며, 2000년에는 심청전이 <관음사연기설화>와 「태평광기」의 <장박전>이 합쳐진 고대소설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처럼 심청전을 연구하는 학자라면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전라남도 곡성군의 <관음사 연기 설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설화의 실체를 찾아가다 보면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에 소재한 백제시대의 고찰 관음사라는 절을 만나게 된다. 백제 분서왕 3년(서기 300년)에 창건되었다는 이 사찰에는 「옥과현성덕산관음사사적」이라는 사적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는 조선 영조 5년(1729년)에 송광사 벽오전사의 제자 백매자(白梅子)스님이 찬술한 관음사의 역사기록으로서 관음사 장로스님 우한자(優閑子)가 들려주는 관음사 창건 유래와 원통전을 해체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상량문의 기록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목판으로 제작 보관하여 왔는데 목판은 한국전쟁 때 모두 소실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유일의 판본이 순천 송광사 정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관음사 연기 설화>는 <심청전>의 근원설화로 국문학계의 주목을 받아 왔으며, 곡성군은 1999년에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 학술연구용역을 맡겼다. 그리고 2000년 2월 『곡성출신 실존인물 효녀심청의 역사적·국문학·고증』이라는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서 사찰기록인 「관음사사적」과 문학작품인 「심청전」을 연결시켜 심청이 실존인물 원홍장이었음을 발표하였다. 서기 300년대 철의 주산지였던 섬진강변의 처녀가 무역항로

를 따라 중국 양자강 어귀의 관음불교 성지인 보타도(普陀島)에 이르는 경로를 추적하면서 원홍장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성립될 수 있음을 밝히고, 이로부터 인당수와 인신공양 및 용궁환생 등 비현실적 요소가 가미된 소설 심청전으로 발전한 경로를 추론하였다. 또한 판소리 심청전에 황해도 황주 땅은 방만춘 선생에 의해서 지명이 개작되었다는 사실도 밝혀내었다.

2. <관음사 연기 설화>와 <심청전>의 비교

20051114 박경남

<관음사 연기 설화>와 <심청전>을 자세히 비교해보면 <관음사 연기 설화>의 내용과 문구, 시간과 상황이 심청전과 유사하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특히 <관음사 연기 설화>의 원홍장이 법당경영의 시주가 되어 아버지와 이별하는 대목과 5월에 황후가 죽자 슬퍼하는 황제의 꿈속에 신(神)이 현몽하여 새로운 황후를 예고하고 점지하는 대목은, 심청전의 심청이가 공양미 삼백 석에 몸이 팔려 아버지와 이별하고, 용궁에서 환생하여 황후로 책봉되는 대목과 내용과 문구, 시간과 상황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

<관음사 연기 설화>는 1911년 조선사찰사료⁷⁾에 수록된 이후 1933년 김태준의 <조선소설사>에서 심청전의 모델이라고 이미 밝혀낸 것으로 학계의 정설이다. <관음사 연기 설화>가 <심청전>으로 발전했다고 보는 이유는 동일한 구성요소와 등장인물, 심청전보다 사실적인 이야기의 전개, 앞서있는 기록시점과 이야기속의 시대배경 때문이다. 원홍장 이야기는 사찰연기설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심청전>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효행, ⁸⁾인신공회, 개안⁹⁾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등장인물도 효녀 원홍장과 효녀 심청, 아버지인 원봉사와 심봉사, 홍법사 화주승과 몽은사 화주승, 진(晉)나라 사신과 남경상인, 진나라 황제와 송나라 천자 등 서로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관음사 연기 설화>는 사실에 의거한 기록으로 현실적인 구성을 보인다. 그에 비해 <심청전>은 허구적 요소를 가미한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심청전>은 후기본으로 내려올수록 인당수와 뽕덕어멈 등 허구적 요소를 가미해 흥미롭게 창작이 반복된 소설이다. 기록시점과 시대배경으로 볼 때도 원홍장 이야기는 관음사 창건과 관련된 내용을 1729년 백매자 스님이 기록한 것으로 서기 300년의 이야기이다. 심청전은 작자미상에 쓰여진 연대도 알 수 없지만, 심청전이라는 세 글자가 나타난 최초의 기록은 조수삼(1762년~1849년)의 추재기이(秋齋紀異)¹⁰⁾이며, 소설의 시대배경은 대명성화(1465년) 또는 송 원풍(1078년)이다. 그러므로 기록시점과 이야기의 시대 배경에 있어서 관음사연기설화가 심청전보다 훨씬 앞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심청전>은 어느 날 갑자기 창작된 것이라기보다는 <관음사 연기 설화> 원홍장 이야기를 근간으로 재구성 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효녀 원홍장 이야기가 곡성 관음사의 관음신앙과 결부되어 권선문으로 오랜 세월동안 전승되면서 목판 등으로 활자화되어 다량 유포되었고, 다시 효와 열을 구현하는 18세기말의 시대분위기를 반영해 심청전으로 발전했으며, 심청전의 무대배경이 중국으로 옮겨 간 것 또한 정치적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작가의 픽션이라는 주장도 있다.

7) : 1911년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에서 편찬한 당시의 불교사료집.

8) 인신공회(人身供犧) : 옛날 제사에서 공양의 희생물로 인간을 신에게 바친 일.

9) 개안 : 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을 처음으로 봉안하는 의식.

10) 추재기이(秋齋紀異) : <문학> 조선 순조 때에 문인인 추재(秋齋) 조수삼이 지은 글. 기이한 인물들의 행적을 먼저 이야기 체로 서술하고 그것을 칠언 절구로 노래하였다.

3. <심청전>의 주제

20091130 임승희

심청전은 어려서는 전래동화로, 자라면서는 소설과 판소리로 심청전과 그 이야기에 담긴 교훈에 대하여 배워왔다. 이 작품의 이야기는 현실 세계가 중심을 이루는 전반부와 환상의 세계가 중심을 이루는 후반부로 크게 나누어진다.

전반부는 가난한 심봉사의 외딸 심청의 지극한 효성이 중심을 이루면서 부모에 대한 효성이라는 사회 윤리적 가치가 중심을 이룬다. 재생한 심청이 부귀를 누리다가 부친과 상봉하는 후반부에는 죽음과 재생의 모티프를 통해 현실성과 초월성이라는 두 세계를 접합시키고 있다. 전반부의 현실 세계는 비장미와 숭고미를 창출하고 있으며, 후반부의 초월 세계는 곧 민중의 소망인 효에 대한 인과응보로 이해된다.

심청전에는 민중의 신분 상승 욕구도 반영되어 있다. 심청의 희생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수단인 동시에 자신도 고귀한 지위에 오르는 결과를 낳는다. 심청의 환생은 효행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도 있고 효행을 더욱 완벽하게 실현하는 방편으로 볼 수도 있다. 결국 심청전은 가난하고 미천한 한 인간이 자기 희생을 통하여 고귀한 위치에 오르는 이야기인 것이다. 생각의 머리가 조금 커졌다 자부할 수 있는 20살이 되어 다시 심청전을 읽은 나는 ‘과연 심청을 효녀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을 갖게 되었다.

<심청전에 나타난 비장과 골계, 조동일 교수 논문 1971>에서, “심청은 효를 행하기 위하여 앞 못 보는 부친을 속이고, 부친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안맹이라는 부친의 상처를 자극하고, 부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부친을 말할 수 없이 큰 불행에 빠뜨려야 만 했다. 효를 절대적인 것으로 긍정하기 위해서는 효마저 부정해야만 할 정도로, 심청의 희생이 이율배반적 성격을 지녀야만 했다. 또한, 눈먼 부친을 버리고 가야만 하기에 심청의 결단은 잔인하기조차 했다. 독자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율배반적 결단을 내린 심청을 보고 공포와 연민의 감정을 가지며, 작품에서 제시된 주제에 이론없이 말려드게 된다.” 라고 서술 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심청전의 주제는 진정한 효(孝)가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다.

<심청전 신연구 국어국문학 1987>의 논문을 보면 심봉사가 개천에 빠졌다가 자신을 구해준 화주승에게 눈을 뜨기 위한 공양미 삼백 석의 시주를 약속하자, 심청은 자신을 제수로 팔아 아버지에게 공양미를 마련해준다. 여기에서 “심봉사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딸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공양미의 시주를 약속함으로써 해서 결국 심청을 죽음의 길로 떠나보낸다. 의도적이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딸을 죽음의 길로 떠나게 한 심봉사는 결국 딸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심봉사는 결국 우회적으로 딸을 버린 아버지이며, 심청은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간 효녀이다.”라고 주장한다. 심청전의 이야기 안에서도 모든게 효(孝)로 통하진 않는다. 뱃사람들이 항해의 안전을 위해서 인제수로 낚자의 몸을 사고,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고 난 뒤 심봉사가 뺨덕 어미와 별이는 행각은 도덕적 덕목과는 거리가 먼 비속한 세태를 반영한 것이다. 이 문제에서의 주제는 뱃사람들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억울하게 희생되는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다.

4. <심청전>의 배경 : 관음사, 백령도, 중국 주산열도

20091131 장원석

관음사는 곡성군 오산면 선세 마을에 위치한다 또한 백제 분서왕 3년(300년)성덕보살이 전남 별교에서 금동 관세음보살상을 모셔와 봉안하여 창건한 남한 제일의 백제 고찰이며 내륙 유일의 관음성지로서 그 가치가 크다. 6·25당시 공비들이 오래도록 이곳에 남아 관음사를 기지로 삼자, 이들을 없애기 위해 이 사찰에 불을 지르게 됐고, 그로 인해 국보 제 273호로 지정되어 내려오던 고려조 건물 원통전(圓通殿)이 타고 그 안에 보존된 국보 제 214호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불에 타 머리 부분만 남아 있다.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현존 건물 8채 중 3채는 타지 않고 남은 건물이고 4채는 1954년 박창운 스님이 이 절 1km쯤 위에 있던 대은암(大隱庵)을 이축한 것이다. 관음사는 고대소설 심청전의 원류로 추정되는 원흥장 설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문화재자료 제 24호이다.

백령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에 속하는 섬으로 면적은 45.6평방km이고, 해안선 길이는 56.75km, 2006년 2월 기준 현재 총4,469명(남2,300명,여2168명)군인포함10,000여명 상주하며, 백령도의 의치와 크기 장산곶 남쪽38선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인천에서 북서쪽으로 191.4km떨어져 있다. 서해 최북단으로 남한 본토보다 북한 내륙에 가깝다. 원래 국내에서 14번째로 큰 섬이었으나, 화동과 사곶 사이를 막는 간석지 매립으로 약100만평이 불어나8번째로 큰 섬이 되었다. 심청전에서는 중국 상인들이 심청이를 빠뜨린 곳으로 나와 있는데, 백령도의 두무진에서 북쪽을 보면, 장산곶이 아주 가깝게 보이는데, 그 사이에 물살이 센 곳이 심청이가 빠진 인당수라고 한다.

주산열도는 저우산시 푸투어취라는 중국식의 복잡한 발음 때문에 무척 생소한 것 같으나 이곳은 흔히 우리 식으로 한자를 읽으면 주산군도로서 이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 주산군도 중 가장 큰 섬이 주산도, 그 다음이 보타도이다. 중국 절강성 주산군도 심가문이란 동네에 [심원]이란 기념관이 있는데, 진나라 시절 바다 건너 백제의 효녀 -심청이 시집왔다, 심청의 효를 테마로 하는 이야기를 묘사하기 위해 세워졌다고 이른다.

중국의 지도를 들여다보면 주산군도는 저장성(浙江省)의 성도(省都)인 항주(杭州)를 끼고 흐르는 전당강(錢塘江)이 황해바다로 들어가는 항주만에서 동쪽 동중국해상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그리 멀지 않은 바다 속에 있는 섬이다. 보타도는 남북 6.4킬로미터, 동서 4.3킬로미터로 그리 크지는 않다. 이 섬 옆에는 쿠로시오(黑潮)해류가 남에서부터 북으로 흐른다. 이 해류를 타면 우리 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 일본의 규슈가 곧바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이 곳 주산군도의 보타도는 고대에 중국에서 한반도나 일본으로 가기에 가장 좋은 지점이었다. 보타도는 이처럼 고대 항로의 중심점이었고, 그 때문에 많은 백제인과 신라인들까지도 고국에 돌아가기 전에 이곳에서 안전한 항해를 빌었으며, 송나라의 사신으로서 고려를 방문했던 徐(서) 兢(경)도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안전한 항해를 빌었다. 여기서 심청이의 근원 설화인 원흥장 이야기를 유추해볼 수 있다.

5. 백광홍의 생애

20071112 김유리

백광홍(1522-1556)은 조선 중기의 이름난 시인으로 호는 기봉이라 칭하였다. 작품 <관서별곡>은 지금도 가사 작품으로 오늘날 여러 학자들에 의해 그 문학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백광홍(白光弘)은 1522년에 전라도 기산 마을에서 아버지 백세인과 어머니 광산 김씨 사이에 태어난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기봉이 태어나서 자란 기산에는 ‘봉명재(鳳鳴齋)’라는 서당이 있었으며 서당에서 학문의 기초를 닦는데 전념했다. 고향 마을에서 수학하던 기봉은 더 높고 큰 학문을 닦기 위해 향리를 떠나 유능한 학자를 스승 삼기로 했으며 그가 스승으로 삼은 사람은 일제 이항 이었다. 기봉은 성리학 연구와 시 창작에 열중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해 1549년 28세의 나이로 과장에 나아가 ‘사마양시(司馬兩試)’에 합격하게 된다. 그리고 3년 후 1552년에 홍문관 정자의 벼슬에 오르게 되었다.

기봉은 “동지(冬至)”라는 부(賦)를 써서 장원을 했다. 1553년에는 순수한 학문 연구 기관이라고도 말하는 호당(湖堂)에 뽑혀 순수한 학문만 공부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러나 학문에 열중하던 기봉에게 1555년 뜻 밖에 왕의 명을 받아 평안도로 부임하게 되었고 부임한 기봉은 그 곳에서의 삶과, 자연의 풍경을 시문으로 적어 “관서별곡”이 탄생하게 되었다.

관서별곡은 왕의 명을 받아 부임한 평안도에 머물면서 그 곳의 자연 풍물들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계속 머물면서 그리워지는 어버이 생각과 왕에 대한 충성심을 이야기하면서 귀경하

고 싶어 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또한 시조에 비하여 길이가 긴 장편의 노래라는 점에서 산문문학으로 전이되었으며 기행가사는 서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기봉은 한시 부문에서 장시와 부에 능했으며 서사적 성격을 지닌 작품도 몇 편 남겼다.

기봉은 “관서별곡”으로 조선의 8대 문장가의 한 사람이 되고 가사문학의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 25년 뒤에 지어진 정철의<관동별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기봉은 안타깝게 평안도 부임 한 지 불과 1년 만에 병을 얻게 되어 더 이상 객지에 머무를 수 없어 1556년 관직을 그만두고 귀향하다가 병으로 35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의 저서로는 1899년에 <기봉집>이 있다.



6. <관서별곡>의 내용

20071112 김유리

명종 10년 봄, 백광홍은 평안도 평사가 되어 서도 관방에서 백성들의 병을 살피면서 그곳의 아름다운 자연 풍물을 보고 지은 기행가사로 1556년에 지어졌다. 이 작품은 3단 구성으로 서사, 본사, 평사로 구성되어 있다.

서사에서는 왕명을 받들고 임무하는 곳으로 떠나면서 노래하고, 본사에서는 관서지방을 두루 살펴 그 곳의 자연 풍물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결사에서는 아버지 생각과 왕에 대한 사랑을 말하며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다.

관서별곡은 시조에 비하여 길이가 긴 장편의 노래라는 점에서 산문문학으로 전이되었으며 기행가사는 서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기봉은 한시 부문에서 장시와 부에 능했으며 서사적 성격을 지닌 작품도 몇 편 남겼다. <관서별곡> 작품은 우리나라 최초의 기행가사이며 조선시대 가사 작품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기행가사이다.

제1문단은 “관서명승지에 왕명으로 보鑑실棋”부터 “귀심(歸心)이論르거니 고향을 사념惻라”까지로, 왕명을 받들어 임지로 떠나는 심정을 읊었다. 제2문단은 “생양관(生陽館) 기슭에 버들조차 프르렀다”까지로, 부임하는 도중의 여러 곳을 노래한 것이다. 벽제와 임진강·천수원을 지나서 송경·황강·구현을 넘어 생양관까지의 노정이 묘사되었다. 제3문단은 “세마태(細馬謁) 홍의(紅衣)에 객흥(客興)이 었더惻뇨”까지로, 평양의 문화제도와 대동강·연광정·부벽루·능라도 등의 풍경을 읊었다. 제4문단은 “일국 웅관(雄觀)이 팔도岫 위두(爲頭)로다”까지이다. 백상루에 올라서 청천강을 바라보고, 철옹성에서 사방을 내려다보는 경치가 팔도강산에서 으뜸이라고 읊었다.

제5문단은 “이 경(景)도 도커니와 원려(遠慮)인概 이즐쇼냐”까지로 나누어진다. 약산동대에 올라가서 자연승경 속에 아름답게 치장한 기생들을 거느리고 풍악을 들으면서 술잔치를 베푸는 즐거움을 읊었다. 제6문단은 “시평무사(時平無事)흠도 성인지화(聖人之化)로다”까지로 볼 수 있다. 지은이가 위엄을 떨치고 일행과 함께 도남을 넘어 배고개〔梨峴〕와 설한령(雪寒嶺)을 지나서 장백산 근처의 오랑캐마을까지 돌아다녀 보고, 시절이 태평무사함을 읊었다. 제7문단은 “대황(臺隍)은 장려(壯麗)惻야 침이하지교(枕夷夏之交)로다”까지로, 압록강에 배를 띄워놓고 옛날을 생각하며 술잔치를 베풀면서 통군정까지 내려온 것을 읊었다. 제8문단은 마지막 “미구상달천문(未久上達天門)惻리라”까지이다. 서쪽 변방을 살펴보고 본영으로 돌아오니 마치 신선세계에서 놀다 온 것 같으나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고 임금이 그리다고 읊었다. 이 작품의 영향을 받아 25년 뒤에 정철(鄭澈)은 체재와 수사(修辭)를 모방하여 <관동별곡>을 지었다.

7. <관서별곡>의 문학사적 의의

20091133 정용호

<관서별곡>은 기봉 백광홍 선생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크게는 <관서별곡>이라 부르지만 평양의 역사, 인물, 승경을 노래한 <기산별곡>과 묘향산의 경치를 읊은 <향산별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서별곡>은 우리나라 기행가사의 효시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백광홍의 이전에 기행을 시문형식으로 지은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정의 정확성이나 경관의 모습을 사실대로 기술한 가사라는 형식으로 창작한 기행가사는 <관서별곡>이 최초이다. 관서별곡은 또한 그이후의 많은 기행가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기행가사군의 발생을 시작하게 한 작품이다. 이 외의 또 가장 큰 의의는 한국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고 당시에 모든 문인들에게 찬사를 받았던 정송강의 관동별곡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기봉과 송강은 직접적인 교류를 하지는 않았지만 송강은 스승인 김인후와 기대승 양응정을 통하여 기봉의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한 기봉의 동생인 옥봉과 친구 사이였던 관계로 기봉의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송강이 한창 문학을 배우고 있던 시기에 <관서별곡>은 문학인 전체가 즐겨 불렀었다. 그렇기에 송강의 <관동별곡>에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던 상황이었다.

이제 <관서별곡>과 <관동별곡>을 비교해서 정송강이 관서별곡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첫 번째는 각각의 작품들을 단락으로 나누고 각 단락의 중심내용을 살펴볼 때 기행가사 충신연주가사 도교가사 경물가사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두 작품 모두에서 유교사상과 도교사상을 중시했다는 점이다. 먼저 유교 사상 중에서는 충을 중시하였는데 기행을 떠나는 중간 중간에 임금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모습이나 임금을 밝은 달빛에 비유하는 등의 모습에서 공통된 점을 느낄 수 있다.

도교 사상 중에서는 신선사상이 드러나는데 종반부에서 선계에 가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한 부분에서 또한 공통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웅장한 자연을 보며 자신을 신선과 동일시하는 모습에서 대단한 자부심과 자기과시를 표출하는 공통점을 느낄 수 있다.

또 하나 대부분의 가사문학은 태평세월에 사는 현실만족으로 강호한정이나 풍류를 읊었다. 하지만 <관서별곡>과 <관동별곡>은 과거왕조에 대한 거부나 현 왕조에 대한 우월한 마음으로 현실지향적인 자세로 불렀다. 이 밖에도 <관서별곡>과 <관동별곡>의 닮은 점은 매우 많다.

이처럼 정송강의 <관동별곡>이 <관서별곡>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관서별곡>의 의의가 기행가사의 최초라고 하지만 내 생각엔 <관동별곡>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인 것 같다.

8. 관련 유적 : 기양사

20091134 정우리

1999년 2월 26일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07호로 지정되었다. 전라남도 장흥군 안량면 기산리 65번지에 있으며 수원백씨 종중에서 소유하고 있다. 기양사라 함은 기봉 백광홍, 옥봉 백광홍 등 13현을 모신 사당 이름이다. 여기에 보관된 책으로는 <선시보주> 8권 7책, <선시보유> 2권 1책, <선시속편> 5권 2책으로 모두 15권 10책이 있다.

<선시보주>는 양의 소명태자 소통에 의해 전시되었고 원의 유리가 보주한 중국 시집이다. 책머리에 금화재량의 풍아익서가 있고 하시의 선시보주서, 사숙의 서와 왕자남의 풍아익서, 선시보주 범례가 있다. 면을 달리하여 풍아익선시총목이 있고 상우 유리 탄지집선, 신안 김덕현 인본교정, 건양 현지현 하경춘 손봉간이라 하여 노작 사항을 밝힌 다음 선시보주 목록이 시작된다. 본문의 책머리에는 선시 권 제1이라 하여 권두제목이 있고 행을 바꾸어 아래에 상우 유리 보주라 하여 노작자의 이름이 있다.

<선시보유>는 책머리에 선시보유 목록이 있고 이어 선시보주라는 권두제목이 표기되었으며 선시보주 권하의 제서 다음에는 상우 유리 교선이라고 쓰여 있다.

<선시속편>은 책머리에 선시속편 목록이 있고 이어서 신안후학 호병문의 감홍시통서, 감홍시통 범례가 있다. 선시속편 권 제1이라는 권두제목 아래에는 상우 유리 교선이라는 노작가가 표시되어 있으며, 권5에는 노작자를 신안호병문 중호통, 상우 유리 탄지보주, 신안 김덕현 인본집록이라 차례로 표시하였고 끝에는 식어가 있다. 권5 말미의 주자발에는 선시발과 정통칠년 유월 일인출이라는 간기가 있어 이 책이 초주갑인활자로 인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양사에서 배향하고 있는 인물 중에 선시보주의 주인공 기봉 백광홍은 평안도 평사를 사직하고 돌아와 글을 썼는데 관서지방의 뛰어난 경관을 읊고 있는 기행가사인 관서별곡이 그것이다. 기성별곡과 향산 별곡을 아울러서 흔히 관서별곡이라 한다. 관서별곡은 현전하는 조선시대 가사 중 가장 오래된 기행가사로 평가 받는다.

옥봉 백광홍을 살펴보면 13세에 유학길에 올라 당대의 대 문장가였던 박순에게 글을 배우고 22세에는 진도에 귀양되어 있던 노수신에게서도 글을 배웠다. 아버지의 권유를 못 이겨 과거를 보고 진사시에 합격하지만 대과에 대한 꿈을 버리고 스스로 명산대찰을 유람하며 야인의 길에 올랐다. 재취를 하고 해남의 운경산 옥봉 아래에 터를 잡고 학문에 몰입하는데 그의 호는 여기서 나왔다. 1572년 명나라 사신이 오자 노수신의 천거로 백의제술관이 되어 시와 글씨로 사신을 감탄하게 해 명성을 얻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백광선생'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 옥봉은 송나라 시풍을 거부하고 당시 경향의 시를 써 최경창, 이달과 더불어 '삼당파시인'으로도 잘 알려졌다. 그가 남긴 <옥봉집>에는 504수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1590년 해남의 옥봉서원에 제향 되었고, 현재 해남군 옥천면 송산리에 옥봉 유물관이 있으며, 대산리에 옥봉서원이 있다.

1. 송기숙의 삶

20091135 조기현



송기숙은 1935년 7월 4일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에서 출생하여 전남대학교 국문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1964년 대학재학 중 대학신문에서 활동하면서 평론 〈창작과정을 통해 본 손창섭〉으로 조연현의 추천을 받았으며, 1965년 《현대문학》에 평론 〈이상서설〉이 추천되어 평론가로 등단하였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목포교육대학 교수를 지냈다. 1966년 단편소설 《대리복무》를 발표하면서 소설가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1973년 전남대학교로 교수직을 옮겼으나, 1978년 제4공화국 당시 전남대학교 교수 10여 명과 함께 '우리의 교육지표'를 발표하고 구속되어 청주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이곳에서 《암태도》를 집필하였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내란죄를 적용받아 징역 1년을 복역하였다. 1987년 강만길·리영희 등과 함께 《5·18광주민주항쟁사료전집》을 발간하였으며, 같은 해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를 창립하여 초대 의장이 되었다. 1994년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을 지냈으며, 1996년 전남대학교에 '5·18연구소'를 설립하고 소장을 맡았다.

그의 작품에는 중·장편소설에 광주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오월의 미소》(2000)를 비롯하여, 《백의민족(白衣民族)》(1972), 《자랏골의 비가(悲歌)》(1977~1995), 《암태도》(1981), 《개는 왜 짖는가》(1984), 《어머니의 깃발》(1988), 《녹두장군》(1994, 전12권), 《뚝뚝이 오는 계절》(2003) 등 다수가 있다.

단편으로는 처녀작 《대리복무》(1966)를 비롯하여, 《어떤 완충지대》(1968), 《재수없는 금의환향》(1976), 《귀향하는 여인들》(1977), 《제7공화국》(1988), 《들국화 송이 송이》(2003)가 있다. 간행민담집 《보쌈》(1989), 역사이야기 《이야기 동학농민전쟁》(1992), 산문집 《녹두꽃이 떨어지면》(1985) 등이 있다.

1972년 《백의민족》으로 제18회 현대문학상을, 《녹두장군》으로 1994년 제9회 만해문학상, 1995년 제12회 금호예술상, 1996년 제13회 요산문학상 등을 받았다.

현재는 전남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하여 화순에 칩거하며 꾸준히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2. 송기숙의 소설세계

20091136 조연수

소설가 송기숙은 1966년 처녀작 "대리복무"를 발표한 이후 이 땅의 민중들이 겪은, 비인간적이고 비민주적인 현실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보다 바람직한 삶의 조건을 탐색하기 위해서 소설을 써왔다. 송기숙은 소설이라는 양식을 가지고 한국의 모순된 현실 속에서 문학적 실천의 가능성을 성실하게 보여주려고 노력해온 작가임에는 틀림없다.

그의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소설을 읽고 났을 때 등장인물보다 사건이 더 기억에 남는다는 점이다. 보통 소설 속의 주인공들은 어떤 이미지의 형태로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는데, 송기숙의 소설을 읽고 난 후에는 그 인물들보다는 오히려 그 인물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특수한 사건들이 기억에 남는다. 이런 현상은 아마도 그의 소설이 농민이나 노동자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거나 민중들의 생명력과 역사적 진실을 가르치려는 계몽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그리고 송기숙은 소설이 가지고 있는 허구적 속성을 포기하는 대신 그의 소설 내용이 현실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임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그 폭력과 비합리 및 모순을 고발하거나 비판하고 있다.

또 송기숙 소설의 구성상 큰 특징 가운데 다른 하나는 극적 구성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희곡이나 연극에서처럼, 가능하다면 서술자가 나타나지 않고 뒤에 숨어서 자신들이 이야기를 연출하도록 조심스럽게 도와주는 정도에 머문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서사 정보는 서술자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된다. 과거의 사건까지도 현재 상황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등장인물의 말속에서 암시되는 경우가 두드러진다.

송기숙의 소설은 사건 전개에 있어서 이야기의 인과성을 중요시하여 그 사건이 갖는 의미와 그 사건을 통하여 드러나는 사회현실의 모순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성상에서 보면 그의 대부분의 소설이 인과적 관계로 진행되며 그 인과성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 몇 개의 장면을 일렬으로 배열하거나 병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앞서 말했듯 송기숙 소설은 전반적으로 작가의 개입을 줄여 가능한 한 사건의 문제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는 전략이 사용되었는데 이런 기법은 과거의 사건들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사건의 인과관계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송기숙은 영웅적 인물을 묘사할 때 독자의 상식이나 개념에 의지하여 일반적인 진술을 하기 때문에 그 인물은 개별화된 인물이라기보다는 설명적 인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그 인물들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의 배경은 마치 연극무대의 배경처럼 묘사되어있다. 그리고 서술자는 소리의 이미지나 시각적 이미지를 중요한 극적 장치로 활용한다. 이처럼 연극의 특성을 소설에 삽입함으로써 등장인물의 행위와 정당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독자는 그 등장인물을 살아 있는 개별적 이미지의 형태로 간직하기보다는 그 인물들이 빚어낸 사건을 더 인상적으로 기억하게 된다.

3. <녹두장군>의 이해

20051124 신하늬

농민 그리고 농민혁명에 대한 진실한 시각, <녹두장군>

이 작품은 처음 집필하기 시작하여 완성되기까지 14년이 걸렸고 그 분량도 200자 원고지 18,000여 매 총 12권의 대작이다. 1981년 연재가 시작되었다가 중단되고 1984년부터 <월간경향>에 4년여 연재된 뒤 이를 정리하여 1990년에 제1.2부 4권, 1991년에 제3부 3권이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그리고 1994년, 그 뒤의 제 4부 3권과 제 5부 2권이 나옴으로써 말 그대로 ‘대하’ 역사소설 <녹두장군>이 완간된 것이다.

작가 자신이 역사학계의 연구성과의 부족을 한탄하면서 직접 많은 자료를 보고 실제의 전쟁터를 답사하며 이미 설화가 된 당시의 상황을 채록했기에(송기숙, 「<녹두장군>연재를 잠시 쉬면서」, <월간경향>1988년 5월) 이 소설은 지금까지의 역사학계의 연구성과를 넘어서는 역사적 사실과 해석을 담고 있다고 작가는 자부한다. 그런 만큼 100년 전 농민들의 생활과 풍속이 풍부하고 생생하게 되살아나면서 문학적 진실성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녹두장군>은 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그 이전 시기의 역사소설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진실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 소설은 19세기의 평범한 농민들을 중심으로 하여 농촌사회의 기본적 생산관계 속에서 봉건 말기의 사회경제적 모순을 포착해내고, 그 모순을 극복하려는 농민들의 투쟁인 동학농민혁명의 전 과정을 풍부한 풍속묘사 속에서 생생한 형상으로 펼쳐보이는 데 성공하고 있다.

5부 12권이라는 방대한 체계의 역사소설 <녹두장군>이 대상으로 하는 시기는 1892년 후반부터 1894년 12월까지 2년여로서, 동학농민혁명이 준비되고 전개된 전 과정을 포괄하고 있다. 그런 만큼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 녹두장군 전봉준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동학교단의 지도자들과 당시의 지배층인 조정 주위의 실존인물들이 등장한다. 동학 북점 쪽의 손병희, 서병학, 손천민, 김연국, 남점 쪽의 서장옥, 손화중, 이방언, 김덕명, 최경선, 김개남, 송희옥, 손여옥을 비롯하여, 나중에 전봉준을 발고하는 김경천, 유생 출신으로 농민군에 가담한 이유상, 김원식 등이 등장한다. 농민군과 대립하는 상층 지배층의 인물로는 고부군수 조병갑으로부터 전라감사 김문현, 금송아지 대감 민영준, 민영준과 대립관계에 있던 좌의정 조병세, 영의정 심순택, 무당 진령균, 민비, 고종, 대원군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봉기 이후 조병갑과 교체되어 유화책을 폈던 고부군수 박원명, 농민군과 전주화약을 맺고 선화당을 전봉준에게 내어주어 고루한 유생들로부터 ‘도인감사’라는 비난을 받은 전라감사 김학진, 고부민란을 농민혁명으로 발전시키는 직접적 계기를 제공하게 된 안핵사 이용태, 청일전쟁을 일으키는 원세개와 이홍장, 오오또리와 이또오 히로부미까지 그 시기의 중요한 역사적 인물들이 모두 직접 등장한다. 그러나 이 역사적 인물들은 전봉준을 제외하고는 대개 일상성은 제거되고 사건의 중요한 계기에서 그들이 취한 행동과 발언들만 단편적으로 등장한다.

이처럼 <녹두장군>은 처음부터 역사적인 대사건과 위대한 역사적 인물을 작품의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라, 고부 하학동의 농민들과, 특히 평범한 청년 김달주의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등장인물들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빚어내는 여러 장면들을 역사적인 대사건 속에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그 시대의 전반적인 동향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 수많은 인물은 모두 나름대로 개성을 지닌 인물로 형상화되며 그런 만큼 역사 속에서 일어서는 민중의 삶은 생생하고 풍부하다.

4. <암태도>의 이해

20071123 시민경

19세기를 거치면서 봉건사회의 모순이 이 사회에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지주-전호제의 폐해로 인해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처참한 상황에 봉착했으며, 국가기구와 지방관속들의 일상적 부패와 정치는 민중들을 극한적 상황으로 몰고 가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조건은 “사회모순의 담지자가 구래의 사회를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투쟁”¹¹⁾을 야기했다. 그리고 그 투쟁의 양상은 “소외된 양반층이 봉건권력을 획득하려는 지향과 농민들의 봉건착취에 반대하는 지향이 결합하는 나타나는 각종 정치적 변란, 그리고 소작 농민들의 투쟁이 집단적 봉기로 발전하여 전개되는 항조봉기투쟁”¹²⁾까지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소설 <암태도>에서 다루어지고 현실은 그 가운데 ‘항조봉기투쟁’에 해당된다.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3.1 운동 이후 전국적으로 소작쟁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암태도라는 섬의 소작인들이, 목포에 살고 있는 부재지주 문제철이라는 지주에 맞서 소작료 3:7제를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암태도라는 섬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배경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다. 즉 “육지에서 별바르게 살 수 없는 도망꾼들이나 감사도배의 귀양다리들이 상당히 많았”고 “모두가 그 본색을 숨기고 있어 자세히 모를 뿐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은 ‘소작쟁의 가운데 민중들이 보여준 의식의 선진성과 실천성이 어디에서 연원하는가?’ 라는 물음의 숨겨진 답이 된다.

<암태도>는 역사소설이다. 실제인물들을 그대로 등장시키고, 당시의 신문을 게재하는 등, 소설적 허구성을 상당부분 포기하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 인간 삶의 고귀한 형상을 발굴해 내고 있다.

<암태도>를 다른 농촌소설과 비교해보았을 때 다분히 상투적이며, 도식적인 내용과, 중편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분출하고 있는 공감의 파장과 문학적 성취는 작가 송기숙의 철저한 역사인식과 현실주의적 관점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이 소작쟁의의 의미를 부단히 동학농민전쟁과 연관시키면서 역사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암태도>에서 나타나는 문학적 성취는 바로 식민시기 이기영의 「고향」을 통해 시도된 바 있는 민중성을 여과없이 나타내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70년대 지식인 소설의 한계를 민족문학론 내부에서 극복하고, 80년대 민중소설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그의 작품을 통해 <순사라면 개 꼬랑지 감추듯> 두려움에 떠는 당시 농민들의 순박한 정서와, 동시에 그러한 엄혹한 현실 가운데서 투쟁의 장으로 나서는 해방된 주체의 모습, 한편으로 해당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소외당한 인물의 배신을 엿보게 되며 나아가 소작쟁의가 씨족갈등으로 전락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모두 마주할 수 있게 된다.

11) 한국근대민중운동사서술분과 『한국근대민중운동사』 돌베개, 1989. 36쪽

12) 기서는 투쟁의 양상을 크게 두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흥경래를 중심으로 발생한 ‘평안도 농민전쟁’을 두 번째 것으로 ‘1862년 농민항쟁’(진주민란으로 일컬어지나, 이 저작에서는 ‘진주’라는 국지성을 극복하기 위해 1862년 농민항쟁으로 표기한 듯 함)과 동학농민전쟁을 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쪽을 참조하라.(망원한국사연구실, 앞의 책, 39쪽)

5. 관련유적: 정읍동학농민혁명기념관,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비, 암태도

20091138 주소현

1. 정읍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월 고부(古阜) 농민봉기로부터 시작되었다. 동학농민군이 전국을 휩쓸었던 "갑오동학농민혁명"은 수십만의 희생자를 낸 채 좌절되었지만, 그것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결정지은 역사의 일대 사건으로 역사에 남겨졌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은 봉건적 사회질서를 타파하고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반봉건·반외세의 기상을 높이 세운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중항쟁이라고 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그 유서 깊은 자리에 건립된 기념관이다. 이곳은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학술자료 및 유물자료 그리고 기념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유적지를 비롯한 사료와 관광정보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전통초가형으로 만들어진 전시관은 사무실, 수장고, 기획전시실, 1·2층 상설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시설공사가 완료되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와 정신의 선양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2.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비



장흥읍은 동학 농민군의 최후의 혈전을 벌였던 곳이다. 송기숙의 소설 녹두장군에서도 이곳은 최후의 격전지로 등장한다. 1894년 12월 1일 금구·광주·화순·남평 등지에서 패전한 동학 농민군이 장평면에 집결하여 전의를 가다듬고 장흥에 있던 농민군은 송정과 모정 등에 모여 12월 4일 벽사역을 점령하고 12월 5일 새벽 장흥읍성을 침공하여 당시 부사 박헌양(朴憲陽)외 95인의 장졸을 희생시킨후 강진현과 병영을 점령하였으나, 경군과 일본군이 소지한 신무기에 제압당하여 12월 15일 석대들에서의 혈전을 마지막으로 흩어졌다.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1992년,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는 어지러운 정치와 외세를 몰아내어 패망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건지려는 농민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의로운 선현들의 행적을 기념하기 위해 군민들의 후원 속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후의 혈전지였던 석대들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이 기념탑을 세웠다.

송기숙 선생이 탐문을 쓰고 고은 선생이 "장흥농민군을 기리는 노래"를 적었으며 이 지방 서예가인 김승남 선생의 글로 새겼다.

3. 암태도

돌이 많이 흩어져 있고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싸여져 있다고 하여 암태도로 유래되었으며, 선인들의 피와 땀, 눈물과 통곡이 스며있는 역사와 무게를 짊어진 고장이기도 하다.

1924년에 일어난 '암태도 소작쟁의'는 우리나라 소작쟁의의 효시였다. 이것은 암태도 소작인들의 고율 소작료 인하운동으로 시작되어 소작료 불납운동 과정에서 많은 농민이 희생되어 이를 기념하기 위해 1998년, '암태도소작인항쟁기념탑'을 세워 암태도의 숭고한 소작인 항쟁을 기념하고 있다.

또한 암태도는 자은도와 연결된 은암대교의 개통으로 역사의 숨결과 함께 아기자기한 볼거리와 애깃거리가 풍부한 섬 기행 코스로 각광받고 있어 관광객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

1. 한승원의 생애

20091139 최새봄



한승원(韓勝源)은 1939년 10월 13일 전라남도 장흥에서 8남매 중 둘째 아들로 출생하였다. 1954년 장흥고교에 입학하여 당시 문예부장이던 선배 송기숙을 만나 교지<억불>을 창간했고, 1961년에는 서라벌예술대학교 문예 창작과에 입학하여 김동리에게 소설을 지도 받았다. 1966년 신아일보 신춘문예에서 <가증스런 바다>가 입선되었으며, 1968년 대한일보에 <목선>으로 등단하게 된다.

한승원은 데뷔작인 <목선>에서부터 수백편에 이르는 작품을 통해 전남 장흥의 남해 바닷가의 황폐화한 어촌의 배경을 중심으로 한 삶에 대한 토속성과 한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

1980년 그는 <그 바다 끓며 넘치며>와 <구름의 벽>으로 한국소설문학상을 수상했고, 1982년에는 <누이와 늑대>로 대한민국문학상을 수상했으며, 1983년 <포구의 달>로 한국문학작가상을 수상했다. 또한 1988년에는 <해변의 길손>으로 이상문학상의 수상을, 1997년에는 <포구>로 한국해양문학상을 수상했다. 현재 한승원은 장흥군 안양면 율산마을에 그의 호를 따서 이름 붙인 '해산토굴(海山土窟)'에서 살고 있고, 그의 고향에서는 포구 갯바위에 한승원의 문학비를 세워 주었다.



<한승원 생가>

2. 한승원의 소설세계

20091140 최순택

한승원은 남도 문화와 바다풍경을 엮은 작가이다. 데뷔작 <목선>에서부터 <앞산도 첩첩하고>, <기차굴>, <포구1>, <해변의 길손>, <새끼무당> 등의 중·단편과 자전소설인 장편 <해산 가는길>과 <사랑> <꿈> 등에 이르기까지 수백 편에 이르는 작품이 있다. 그의 작품은 전남 장흥의 남해 바닷가의 언어를 중심으로 토착어를 구사하며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바다를 다루고 있다. 그리하여 남해 바닷가는 한국 소설사에 원형 상징성을 띄는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승원의 소설에서 바다는 본연의 바다라는 뜻으로 생생한 자연으로 나타나며 생태적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바다와 관련되어 사는 인물들과 인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바다로부터 생태적 감수성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유와 감각은 바다와 직접 접촉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온 인물들과 그런 그들의 삶의 태도에 입각하여 어두운 죽음의 역사를 극복하고자하는 한승원의 문학세계를 만들게 된다.

한승원의 바다에 대한 집요한 탐구와 애착은 생태적 감수성과 의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생태문학이 생태적 논의나 개념을 통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 감수성과 의식의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그의 소설에서 바다는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의 어릴 적 바닷가에서의 체험은 그가 소설을 쓰는데 해안가 특유의 향토적 말과 생각을 가능하게하고 그의 상상력의 원동력이 되었다. 한승원은 남해안 지방의 토착어를 통해 인물의 감정이 글 속에 그대로 배어들게 하고 있다.

한승원의 문체의 특징은 토속성이며, 말 그대로 시골 냄새가 풍기고 구수하며 이따금씩은 거친 느낌을 가진다. 긴 호흡의 문체가 마치 시골 어머니들의 마침표 없는 뉘두리와 꼭 닮아 있다. 듣고 느끼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생각하기에 골머리 아픈 것이 우리네 어머니들의 뉘두리와 삶이라면, 그 어머니의 복잡하고 다양한 심리 표현에는 최적의 문체일 것이다. 즉 이러한 토속적인 표현으로 한층 더 다양한 인간의 내면세계를 표현했다 할 수 있다.



<한승원 소설의 배경 : 회진포구>

3. 한과 풍요의 이질적 만남 -<포구>의 이해-

20061115 박정성

“허리에다 술병을 찬 머리 허연 남자 한 사람이 모래밭 길을 미친듯이 달려오더니 강을 건너가더군요. 그러다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얼마쯤 후에 그 남자를 뒤쫓아 온 여자가 모래밭에 두 발을 뺀고 앉아 슬피 울더니 강물에 뛰어들어 버렸습니다.”

- 『고금주』, 공무도하가 -

“현대를 사는 사람들치고 그 백수광부의 녀에 찍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사람들은 모두 그 녀에 찍어 몸부림치고 있다.” - 작가의 말 -

해미의 유골을 들고 자신의 고향인 해매도로 돌아온 성진은 해미의 동생인 해숙과의 생활을 시작한다. 십리포구는 주인공의 아버지가 장경철의 아버지인 장우근을 살해하고, 후에 장경철에게 죽임을 당한 곳이다. 이후 장경철은 해매도의 각종 이권을 차지하고 성진과의 마찰을 하게 되고, 성진이 해매도를 떠나게 된다. 해매도로 돌아온 성진은 새로 해매도의 이권을 장악한 박창길 등과 끊임 없는 마찰을 하게 되고, 이로인해 성진은 한때 자신이 머물던 공양주보살과의 절간 생활을 그리워하게 된다. 해매도에서 새로운 사업인 새우 양식을 하게 된 성진은 후에 해숙이 죽게 되자, 공양주보살과의 생활을 하러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해매도에 절을 지어 같이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소설에서의 포구는 항상 물이 가득한 동해안의 포구가 아닌, 썰물과 밀물들이 늘 교차되는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있는 포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런 포구의 모습을 통해 작가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표현하려했고, 포구의 이미지에 윤회하는 듯 떠도는 달의 이미지를 더해 스스로가 아픈 역사를 안고 있으면서도 자기 주변의 것을 끌어당겨 품으려하는 포구의 모습과, 그걸 거부하는 달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전체적인 소설의 분위기는 어두운 느낌을 가진다. 자신 아버지의 살인과 죽음이 그리고 그 죽음을 당연하다고 되뇌는 주인공의 모습과 각종 이권을 통해 부딪치게 되는 장경철과 박창길 등과의 갈등, 그리고 험난한 삶을 살았던 해숙의 모습 등은 포구에서의 삶이 곧 한임을 나타내며 어두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주인공은 포구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과거 생활하였던 공양주보살과의 절간 생활을 동경한다. 주인공의 심정은 작품 중반에 갈수록 잘 나타나게 되며, 자신의 몸은 포구에 있지만 공양주보살과의 생활을 했던 절간을 그리워하는 모습은 과거와 현재의 한에서 벗어나려하는 주인공의 이상향 혹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지향점이 어딘가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포구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해숙이 죽고 난 후인 작품의 극후반에 포구에 절을 만들겠다고 하는 다짐을 통해, 한을 극복하고 포구와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즉 주인공이 가지는 한을 해소하고 포구에서 다시는 주인공이 겪었던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살필 것을 다짐을 통해 한의 되물림을 거부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결말을 통해 앞서 말했던 포구와 달의 이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인공이 절간을 지음으로써 보여지는 포구와의 화해와 결합은, 포구를 거부하는 달의 이미지를 바꿔 어두운 밤 뱃길을 비춰주는 공존의 모습으로 결론지어 진다.

4. <물보라>의 이해

20071127 우혜민

해선은 연도 개오지 연안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다. 새우 양식장을 하는 아버지는 자주 술을 먹고 해선을 두들겨 팬 뒤 그를 끌어안고 어루만지며 운다. 해선은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세계로 다가오는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는 어른이라고 생각한다. 그들 부자는 한집에 살지만 서로의 내부를 들여다보지 못한 채 각기 홀로 쓸쓸하다.

해선의 가장 충실한 친구는 그의 그림자이다. 친구는 그런 아버지가 가짜 아버지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하지만, 해선은 아버지와 자신이 모두 왼손잡이라는 것을 들어 말도 안 된다고 다그친다.

학교에서 선생은 해선에게, 진짜 아버지가 너를 데리고 큰 도시로 가기로 되어 있으니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라고 한다.

하지만 해선은 물으로 가는 배에서 뛰어내려 자신을 키워 준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이 배를 운전하고 금산으로 가서 부영이로 둔갑한 진짜 미남 아버지를 만나겠다고 마음먹는다.

<물보라>는 십 소년인 해선의 시점으로 씌어졌다. <물보라>에서 해선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아버지 만들기이다. 해선은 무뚝뚝하고 거친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아버지를 걱정하고 돌보고 그의 사랑을 얻고자 한다. 아버지 또한 해선을 매질과 꾸지람으로 대하지만 그 나름의 방식으로 해선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고 있다. 해선은 진정한 아버지를 갈구한다.

해선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만들어 가면서 스스로 아버지의 세계와 질서를 익혀 가게 되는 것이다.

해선의 유일한 말상대이자 친구는 그의 그림자이다. 또 다른 자아이며 분신이기도 한 그 친구는, 해선과 서로 상반되는 작용을 동시에 하는 것처럼 역학적으로 대항하는 존재이자 가장 “만만한 친구”이다. 또한 해선이 스스로 만들어 낸 자기 그늘이기도 하다.

생의 깊숙한 비밀을 알아 버린 듯 슬픈 예감에 젖어 모래밭에서 그림자 친구와 하염없이 모래성을 쌓는 어린 소년의 외로움, 새우 키우고 사는 아버지의 서글픈 과거와 해선에 대한 그의 눈물겨운 사랑, 꽃에게 예쁜 자기 모습을 보라며 거울을 대주는 아이의 정겨운 장면. 그리고 이를 아름답게 그려 낸 주옥같은 문장들에서 작가 한승원의 장인적 진수가 빛나고 있다.

1. 이청준의 생애

20091141 최유경



1939년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면 진목리 출생. 1948년 여름 8.15 광복 뒤에 바닷가 어업조합 김창고를 빌려 개교한 대덕동 국민학교에 입학. 1954년 졸업.

6.25전란 중 식구들을 모두 잃고 혼자 살아남은 외종 형 김용철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해준 말의 큰 용기를 얻었다. ‘무엇 다투려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만이 옳음을 내세우려 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항상 그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 그 상대방도 옳은 경우가 허다하다. 그 내세움이나 다툼질도 거짓끼리의 내세움이거나 다툼질 일 수가 많다. 다투려 드는 사람들의 내세움을 쉽게 믿지 마라. 선불리 다투려 들지 마라. 다투며 살지 마라’ 이후 중학교와 광주제일고등학교를 다니며 책 세계에서만큼은

다른 사람과 다툼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대학진학을 문학전공 학과를 선택한다.

1965년의 데뷔작 《퇴원》으로 신인상의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1968년 《병 신과 머 저리》로 제12회 동인문학상, 1978년 《잔인한 도시》로 제2회 이상 문학상을, 1986년 《비화밀교》로 대한민국문학상을, 1990년 《자유인》으로 이산문학상을 수상하였다.

《퇴원》, 《병 신과 머 저리》 그리고 5.16 쿠데타의 후유증없이 군상을 소재로한 《소문의 벽》, 《씩어지지 않은 자서전》, 《조율사》 등이 다툼이 없는 삶, 거짓 없고 의혹이 없는 내용의 소설이었다. 1970년대 쓰여진 《이어도》, 《당신들의 천국》, 《잔인한 도시》도 마찬가지이다.

1970~1980년대 초반까지 쓰여진 《남도사람》과 《언어사회학 서설》 두 작품 또한 당시의 산업화와 도시지향 풍조 속에 감성적 삶과 이성적 삶, 개인적 삶과 사회공동체적 삶, 전통적인 정서와 도회적 질서들을 우리 인간살이의 상호보완성이나 편견 없는 삶 등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1980년대 5.18이후부터는 은밀스런 소망, 다툼 없고 내세움 없는 소망이 오직 부끄럽고 고통뿐이었다. 이러한 느낌은 《새를 위한 악보》, 《시간의 문》, 《비화밀교》, 《벌레 이야기》, 《여름의 추상》, 《그 노래 다시 부르지 못하네》 작품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이 느낌은 《자유인》과 《인간인》, 연작 물인 《가위 밑 그림의 음화와 양화》들로 1990년까지 이르렀다.

이청준은 그 외에도 《굴레》, 《석화촌》, 《매잡이》,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떠도는 말들》, 《낮은 목소리로》 등 많은 작품들이 이청준의 작품세계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자신의 작품세계가 뚜렷하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 받았던 소설가 이청준은 2008년 7월 31일 별세하였다.

2. 이청준의 소설세계

20091143 한유진

그의 소설은 도시의 내면적 세계에서부터 전통적인 장인의 세계에 까지 폭넓고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다루고 있기에 그의 소설들은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그런 그의 성과 속에는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실이 있었다. 그가 살고 있던 당시는 우리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다. 자유와 억압이 번갈아 나타나면 국민들은 혼란에 휩싸이는 격동기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 속에서 지식인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자유란 무엇이고 왜 자유 때문에 싸워야 하나? 이러한 질문들은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고뇌를 해야 했다. 그도 역시 그런 작가 중 한명이었다. 이러한 그를 비평가들은 자유주의 작가라고 평가를 한다.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비정상적인 인물들이다. 그는 비정상적인 인물들을 통해 억압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은 그러한 고통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결국 그들은 다시 좌절한다. 많은 비평가들은 이러한 인물의 좌절되는 모습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억압에 대한 이청준의 작품 속 고뇌에 의미를 둔다. 그래서 그를 자유주의 작가라고 평가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고뇌가 좌절로 끝이 난다면 그것은 실패했다고 평가가 될 수 있다.



<이청준 생가>

3. <서편제>의 이해

20091144 한태성

서편제는 전라도 보성에서 시작됐다. 보성은 3경(산, 바다, 호수가 잘 어우러진 풍경이 불만하다 하여 3경) 3보향(의향, 예향, 다향)으로 통하는데 서편제의 비조 박유전과 보성소리를 만든 정응민 등을 배출한 곳으로 판소리계의 성지다. 서편제 판소리는 흥선대원군과 고종의 후원으로 전국적인 유파로 발전해 송계 정응민 명창의 제자인 박기채, 김준섭, 반축성, 정권진, 조상현, 성우향, 성장순 등 수많은 명창, 명인들을 배출했다. 이후 서편제는 소설화, 영화화를 통해 더욱 유명해졌으며 현재는 판소리=서편제 라는 공식마저 성립할 정도다.

서편제하면 박유전을 빼놓을 수 없다. 박유전은 어렸을 때 김세종에게 우조를 배웠다. 이후 계면조를 배우는데 계면조를 배울 때는 걸출한 스승이 없어 스스로 득음을 시도한다. 그래서 통성달미소리와 새소리 귀곡성 이 3가지를 득음하고 이 소리들에 자연음을 바탕으로 계면조와 우조를 혼합해 새로운 창법을 개발했다. 이는 계면조에 가깝지만 계면조와는 다르다. 후에 대원군이 강산제라 명명했다. 이 창법으로 우조천하였던 판소리계가 박유전의 출현으로 퇴보하고 계면조가 중심이 되게 된다. 이때부터 박유전의 고향인 보성을 중심으로 섬진강 남서부 지역을 서편제, 서북부 지역을 동편제로 나뉘어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결국 박유전이 우조를 익히지 않거나 계면조를 익히지 않았다면 동/서편제의 구분은 생성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후 박유전의 소리는 정재근-정응민 으로 이어진다.

보성의 한적한 주막 오른쪽으로는 해묵은 묘지들이 길가에 죽 늘어서 있다. 이 공동묘지를 뚫어 나가는 고갯 길목을 사람들은 흔히 소릿재라 말했다. 주막역시 소릿재 초입부분에 있으니 소릿재 주막이라 불릴만 했다.

이와 같이 공동묘지와 주막을 배경으로 시작하는 소설 서편제는 이미 '한'이 그 주제임이 드러난다. 이후의 줄거리는 한 젊은 여인은 소년을 무덤가 옆에 두고서 발일을 한다. 어느 날 어디선가 하루종일 노랫소리가 들려오는데 해질녘 이 소리가 여인을 덮쳐버렸다. 이후 여인은 계집아이를 하나 낳고 죽어버렸다. 그 후 그 소리는 갓난애와 소년을 데리고 정처없이 돌아다니며 소리로 밥 구걸을 한다. 이렇게 10년이 지나고 사내는 소년에게 소리를 가르치려 하지만 소년은 배울 마음이 없다. 오히려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원수라 생각하며 복수심만을 키우고 있었다. 사내는 포기하고 계집 아이에게 소리를 가르쳤는데 계집 아이쪽은 소리를 제법 할줄 알았다. 얼마후 소년은 복수의 기회를 잡고 사내를 죽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영영 자취를 감춘다. 이렇게 소년이 도망가자 사내는 계집아이도 도망갈까 무서워 눈을 멀게하고 소리를 열심히 가르친다. 후에 죽기직전 계집아이에게 사실 눈을 멀게 한 건 눈의 기가 목으로 가서 소리가 잘 나온다 하여 눈을 멀게 했다고 실토하고 용서를 빈다. 계집아이는 다 지난일이고 모두 알고 있으니 염려 마라고 하니 사내는 안심하고 눈을 감는다. 이후 소녀는 주막집을 전전하며 소리를 하던중 오라비와 만나나 서로 알아보고도 아는척 하지 못하고 말 없이 헤어진다. 이후 어머니의 원수로 인지되었던 '소리'를 마침내 이해하고 자신의 기구한 삶을 하룻밤의 소리로 달랜다. 결국 소년은 몰아일체하며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 결국 소년과 계집아이 둘 모두 용서함으로서 원한을 한으로 다시 한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소설 서편제의 표제는 '사는 것이 바로 한을 쌓는 것이고, 한을 쌓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다' 이 한구절에 소설 서편제의 모든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이미지는 서편제 가락의 특성인 슬프고 애절한 계면조와 연루되어 상징성이 부각되고 있다. 결국 소설 서편제의 중심 소재는 '한'이다. 소설뿐 아니라 우리 판소리가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게 한이다.

4. <선학동(仙鶴洞) 나그네> - 남도 사람, 그 세 번 째 -

20001004 권혁기

작년 7월의 마지막 날, 소설가 이청준씨가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갔다. 그토록 한(恨)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갔는데, 과연 당신은 한없이 돌아갔는가 궁금하다.

「선학동 나그네」는 연작 소설집 『남도사람』中 세 번째 작품이다. 「서편제」, 「소리의 빛」에 이은 마지막 작품이다. 고(故) 이청준씨의 이야기를 보자.

나는 남도 소리도 삶의 한 양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흔히 남도 소리의 핵심을 한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한이라는 것이 삶의 과정에서 맺혀진 어떤 매듭, 웅이 같은 것으로 얘기될 수 있다면, 그 맺혀진 매듭, 웅이를 삶으로써 풀어 나가는 한 양식, 그것을 저는 소리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소리 자체가 삶의 또 다른 양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소리로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우리 삶을 떠나서 의미를 잃고 말 자체의 질서 속으로 응축되어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삶과 더 깊이 연결지어지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어 사회학 서설’의 주인공이 도회의 삶에 끼여들지 못하고 방황하듯 남도 사람의 주인공도 시골의 삶에 융합하지 못하고 떠돌이 계속되는 것은 그가 원래 그 시골의 삶에서 쫓겨난 사람이며, 그래서 그 삶의 깊이에 도달하지 못한 까닭으로,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노력의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지요.

<신동아> 1981년 10월호에 ‘작가와 대화’에 이청준씨가 인터뷰에 응한 내용이다.

이야기의 골자는 남도 소리의 핵심은 한이고, 한을 풀어가기 위한 한 양식의 하나로 소리를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독자의 입장에서 작가의 의도를 직접 듣기 전에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웅당 웅은 일이겠지만, 오래된 작품이고, 작품에 대한 이해가 작가의 의도와 크게 벗어나지 않기에 작가의 말을 적었다.

소설 「선학동 나그네」의 배경은 선학동이다. 선학동은 포구에 물이 들면 마을 뒤의 관음봉이 한 마리의 학의 모습이 되어 날아오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위에서 보듯 소설의 배경인 선학동은 선학(仙鶴)이 있는 마을, 인간이 꿈꾸는 이상의 세계, 삶의 한이 예술적으로 승화되는 곳, 자연과 인간이 소통을 이루게 하는 장소이다. 소설에서 백학은 여자의 소리를 통한 한의 승화, 궁극에 이른 예술의 경지, 한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상징하고 있다. 소리꾼 여자와 나그네 서로에게 한이 되면서도 만나서 그것을 해소할 수 없는 관계, 즉 한스런 삶을 상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소리가 한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 소리의 마지막 경지인 득음(得音)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한의 해소, 또는 승화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전략).....그는 고개 위에 손이 모습을 남기고 있는 동안 하루 종일 그 고개 쪽으로부터 어떤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들려 오고 있었던 것만 같았다. 그것은 옛날에 들은 그 여인의 노랫가락 소리 같기도 하였고, 어찌면 사내 그 자가 한나절 내내 그렇게 목청을 뽑아 내리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였다.....(중략)....사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보았을 때, 길손의 모습이 사라지고 푸르름만 무심히 비껴 흐르고 있는 고갯마루 위로 언제부턴가 백학 한 마리가 문득 날개를 펴고 솟아올라 빈하늘을 하염없이 떠돌고 있었던 것이다.

작가의 말대로 소리가 한이라면, 분명 득음하였던 여인이나, 선학동에 다시 백학을 날게 한 ‘손’이나 한을 풀어낸 것이어야 하지만, 역시 사람과 사람간의 한은 사람이 풀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그 사람이 풀지 않고 가슴속에 담아둘 뿐...

<한국문학탐방 1> 수업 일정 및 과제 안내

3월 12일(목) : 답사 조편성, 과제 배당, 시간 : 오후 6시, 장소 : 인문대강당(4406)

3월 23일(월) : A반(1조-6조) 발표, 시간 : 오후 6시, 장소 : 4506강의실

3월 25일(수) : B반(7-12조) 발표, 시간 : 오후 6시, 장소 : 4506강의실

3월 30일(월) : 답사 자료집 발간

4월 1일(수) - 4일(토) : 본 답사 실시

4월 21일(화) : 답사 후 발표문 수정(조별 모임)

4월 27일(월) : 웹 문서 작성 수업, 시간 : 오후 6시, 장소 : 인문대 강당(4406)

5월 6일(수) : 작품(시/수필) 쓰기 - 1인 1작품(조별 모임)

5월 12일(화) : 과제물 조별 제출(발표문, 웹문서, 작품)

5월 19일(화) : 답사 자료 정리 - 홈페이지 작성(민선희 조교)

과제 1 : 발표문 작성 - 발표 - 수정 제출(조별)

과제 2 : 발표문 웹문서 작성 제출

과제 3 : 답사 중의 경험, 사고, 정서를 형상화한 작품(시/소설/기행문 중 1) 제출